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한승대 · 허정필

2019 동북아 해양수도 전략연구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 구 진

연구 책임 **한 승 대** 동국대학교

연구 책임 **허 정 필** 현대북한연구회

감 수 **권 태 상** (재)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 연구개요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정상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였음
- 남북한은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까지 여러 분과별 실무회의를 추진하였음
 - 대표적으로 ‘산림, 보건, 체육’ 분야 분과회담을 실시하였음
 - 특히, 체육분야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개최 하는 데 합의하였음
 -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한국 북한 미국 간의 만남 이후 북한과 미국은 조속한 실무회담 재개를 합의했지만, 실제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북 문화·체육 분야의 전면 교류와 협력사업에 대비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함
 - “4.27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서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는 남북문제의 주요 행위자이며 당사자임
- 부산시는 ‘평화시대 한반도 중심도시 구축’을 목표로 ‘신북방·신남방 정책’ 연구와 연계한 ‘남북경제 및 교류협력 중심도시’를 추진 중임
 - 부산시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단기, 중기, 장기 방안을 모색하였음

- 단계별 문화체육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은 향후 부산시가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 정부주도의 남북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남북 도시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연구와 접근도 필요함
- 최근 북한에서 집중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부산은 해양관광도시의 성공 사례를 교류 및 전달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하며, 부산시가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해양관광도시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부산시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문화·체육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 및 역량을 구축하는데 주목적으로 연구하였음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배경과 대북제재	7
1.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배경	7
2.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전개과정	10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과 이행	12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12
2)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	17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예외	19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접근방안 모색	22
제3장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현황	24
1. 역사	24
2. 제도	29
1)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29
2)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직	32
3) 남북 교류협력 관련 재정 안정성	35
3. 중앙정부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	38
1) 문화 분야 교류협력	38
2) 체육 분야 교류협력	50
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	55
1) 문화 분야 교류협력	55
2) 체육 분야 교류협력	57

제4장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조건	61
1. 역사	61
2. 조건	64
1) 김정은 시대 문화 분야	64
2) 김정은 시대 체육 분야	67
3. 제도	69
1)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69
2)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70
3)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재정 안정성	71
제5장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72
1.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를 위한 준비 현황	72
2.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 방안 전략	73
1) 단계별 전략	75
2) 문화체육 전략	75
3) 국내외 연계 전략	76
3. 문화 분야 활성화 방안	77
1) 단기 방안	77
2) 중장기 방안	80
3. 체육 분야 활성화 방안	82
1) 단기 방안	85
2) 중장기 방안	9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0
Abstract	128
참고문헌	130

표 목차

<표 II-1> 남북 경제성장률 추이	8
<표 II-2> 남북 문화체육분야 회담	11
<표 II-3>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주요 결의	16
<표 II-4>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현황	18
<표 II-5>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	21
<표 III-1> 남북체육회담 현황	27
<표 III-2>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현황	31
<표 III-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34
<표 III-4>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35
<표 III-5>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	36
<표 III-6>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37
<표 III-7>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전후 남북 문화 교류의 추진 현황	39
<표 III-8> 김대중 정부 초기 남북 문화 교류의 추진 현황	42
<표 III-9>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후 남북 문화 교류의 추진 현황	44
<표 III-10> 서울시 남북체육교류 현황	58
<표 III-11> 인천시 남북체육교류 현황	59
<표 III-12> 강원도 남북체육교류 현황	59
<표 III-13> 경기도 남북체육교류 현황	60
<표 IV-1> 부산시 남북사회문화 체육교류 현황	62
<표 IV-2> 부산시 및 주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조례 관련 비교	69
<표 IV-3> 부산시 및 주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대북관련포함)관련 인력 비교	70
<표 IV-4> 부산시 및 주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관련 재정 비교	71
<표 V-1> 2018년 북한 문화 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79
<표 V-2> 2019년 북한 문화 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80

<표 V-3> 남북교류협력 문화 아카데미 운영	84
<표 V-4> 남북교류협력 문화 분야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84
<표 V-5>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 분야 공모사업 실시	85
<표 V-6> 부산-원산 복합문화공간 건립(각 도시에 건립)	88
<표 V-7> 원산 영화제작촬영소 건립	89
<표 V-8> 2018년 북한 체육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91
<표 V-9> 2019년 북한 체육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92
<표 V-10> 2020 세계탁구선수권대회 - 부산개최	94
<표 V-11>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 부산 개최	96
<표 V-12> 부산-원산 간 용선(드래곤보트)교류	98
<표 V-13> 국제마라톤 경기대회 부산개최	100
<표 V-14> 부산-원산-평양국제축구학교 청소년 축구 교류	102
<표 V-15> 부산-원산 청소년 농구 교류	104
<표 V-16> 부산-원산 체육대학 학술 및 체육교류	106
<표 V-17> 부산-원산 간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 및 스포츠교류	108
<표 V-18> 부산-원산 간 대북인도적 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술 교류 그리고 보건부문 스포츠교류	110
<표 V-19> 부산-원산 간 장애인체육 교류협력	112
<표 V-20> 부산-원산 간 스포츠 영양 교류	114
<표 V-21> 부산-원산 간 스포츠관광 교류	121
<표 V-22> 부산-강원-원산 간 남북종단 국제싸이클 대회 개최	123
<표 V-23> 2020 도쿄올림픽 개최종목 기준 대비 2032년 남북 평화올림픽 개최 시 부산 개최 가능 종목 검토	125
<표 V-24> 2032년 하계올림픽 주요 종목 부산 개최	127
<표 VI-1>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타당성 검토(문화)	132
<표 VI-2>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타당성 검토(체육)	133

그림 목차

<그림 Ⅲ-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33
<그림 Ⅲ-2>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	41
<그림 Ⅲ-3> 1992년 통일예술축제	41
<그림 Ⅲ-4> 1998년 남북공동 사진전	43
<그림 Ⅲ-5> 평화친선음악회-로저클린턴 평양 공연	43
<그림 Ⅲ-6> 2003년 KBS 평양노래자랑	47
<그림 Ⅲ-7> 김일성 시대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 구성	51
<그림 Ⅲ-8> 김일성 시대 1991년 남북 축구 단일팀 구성	52
<그림 Ⅲ-9> 김정일 시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북한 참여	53
<그림 Ⅲ-10> 김정은 시대 2018 남북 단일팀 구성	54
<그림 Ⅳ-1>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체육교류 현황	62
<그림 Ⅳ-2> 북한 드라마 <임진년의 심마니들>	65
<그림 Ⅳ-3> 삼지연관현악단 서울공연	65
<그림 Ⅳ-4>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66
<그림 Ⅳ-5> 김정은 시대 체육열풍 및 체육강국 건설 목표 제시	67
<그림 Ⅳ-6> 김정은 시대 스포츠 외교	68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한반도 정세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동년 6월 남·북·미 간의 만남 이후 북·미의 조속한 실무회담 재개를 합의했지만, 실제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현 상황을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로 규정하면서 2019년 12월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음
 - 이는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개선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전략임
-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라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안보위기 속에서 남·북, 북·미 간의 관계 증진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위기로 번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 근년에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선언(2018 4.27), 9월 평양공동선언(2018. 9.19), 6.30 남북미 정상 회동(2019. 6.30)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전기가 마련되었음

2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 그러나 북미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이어지지 못했고, 남북관계 역시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임
 - 근년에 이어졌던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금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줄곧 이어졌던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활동이 작동해야 함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행위자로 참여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평화의 능동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 접근 가능한 분야는 무엇보다 문화와 체육 분야임
 -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임
- 이에 발맞춰 남북 문화·체육 분야의 전면 교류와 협력사업에 대비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함
 - 그동안 남북관계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음
 - 그럼에도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의 합의를 통해 상호 간의 불신을 불식시키려 노력하였음
- 4.27 판문점 선언 1조 4항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는 남북문제의 주요 행위자이며 당사자임
- 한편, 북한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13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 분야의 발전을 언급하였음
 - 보건 분야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서 ‘수도 평양의 현대적 의료시설 부재’를 언급하였음
 -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주로 평양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사회문화시설

- 개선 및 증축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지역의 사회문화시설 개발로 옮겨가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원산-금강산 지구 등의 관광개발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내부 주요 시설 및 기자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주요 물품의 대북 반입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체육 분야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정상이 만나는 데 기여하였음
 - 남북은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까지 여러 분과별 실무회의를 추진하였음
 - 대표적으로 ‘산림, 보건, 체육’ 분야 분과회담을 실시하였음
 -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개최 하는 데 합의하였음
 - 다른 분야보다 문화·체육 분야에서 남북의 합의 수준이 높은 것은 문화·체육 분야가 갖는 유연성에 기인하며, 남북의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임
 - 부산시는 ‘평화시대 한반도 중심도시 구축’을 목표로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남북경제 및 교류협력 중심도시’를 추진 중임
 - 문화·체육은 부산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수행하는 마중물이자 목표를 전면에서 드러내는 매우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부산시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문화·체육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 및 역량을 구축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시의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를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

4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문화·체육 분야 사업의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평화로운 한반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북·미 간 협상 진전 부진과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한반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역사적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첨예한 갈등에서 숨통을 트이게 한 촉매제였음
 - 특히 문화·체육 분야는 이념과 정파적 이해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음
 - 현재 남북관계는 정체되어 있지만, 김정은 집권기의 북한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이 점을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전환하고, 개선하는 데 문화·체육 분야가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현재와 같이 정체된 남북관계에서는 기존의 관습적이면서 의례적인 정책적 언술보다 실천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현황과 현재의 북미 관계 고착,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추진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부산시의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의 방안을 모색해 남북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대부터 최근(2019년)까지임

- 1990년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교류의 물꼬를 튼 시점이기도 함
-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남북 문화·체육 교류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공간적 범위는 전국 단위 및 부산시임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영역의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검토한 후 부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거나 부산시만의 강점을 가진 사업을 선별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기초로 먼저 남북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 추진 배경과 현대의 대북제재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며, 나아가 기능주의적 통합이론¹⁾을 통해 문화·체육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와 결합하여 부산시의 정치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능동적 기능을 검토하였음
 - 문헌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북·미관계, 대북제재 협상과 관련한 국내외 보도 자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공간문헌을 활용하고자 함
 -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은 비정치적 요인들의 교류와 협력이 먼저 진행됨에 따라 기능적 협력이 이루어지며, 다른 분야에까지 협력을 촉진시켜 협력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남북 간 두 체제사이에서 교류가 발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체제통합에 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는 말함²⁾

1) D. Mitrany,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14(July 1948), p. 359.

2) 박상현, "남북스포츠 협상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제16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서울: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8). 유호근,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함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김흥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 및 제한요인과 추진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 제4권, (한국체육정책학회, 2004).; 박상현의 "남북스포츠 협상의 평가와 전망"에서는 남북스포츠 협상의 기존 연구에 대해 이론적 접근과 기능주의적 분석틀을 제시. 정동성의 「스포츠와 정치: 남북한의 통합교류」는 "스포츠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와 결합하여 국가발전을 촉진시키는 능동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 유호근의 "남북 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함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에서는 "비정치 분야인 스포츠에서의 확산과정을 통해 통합대상 사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남북 간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을 설명. 김흥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와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위영역으로서 체육교류협력이 필요하며, 기능적으로 남북체육교류를 지속발전 시켜 다양한 영역에서도 체육을 활용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제시".

6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 다음, 역사, 제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체육 분야 교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다음, 앞선 분석을 토대로 부산시가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타진해 보고자 함
- 끝으로 부산시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할 수 있는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부산시만의 독자적이면서 연계 가능한 사업을 구축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제2장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배경과 대북제재

1.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배경

-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실질적인 남북 교류가 진행되기보다는 남북 각 정치적 목적 아래 남북 교류가 진행되었음
- 1960년대에는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남북 간 상호원칙만 확인하는 자리였음
- 1985년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통해 남북 문화교류 실시
 - 1985년 9월 21일~22일 평양대극장과 서울국립중앙극장에서 서울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이 각 2회의 공연 실시
- 1990년대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속에서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1988년 7월 「7·7 특별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하였음
 -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사이

8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 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하였음
- 1990년 10월 12월 ‘평양 범민족통일 음악회’와 ‘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가 진행되었음
- 1990년 11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진행된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남북은 분단 이후 최초로 탁구(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991.04.24.~05.06)와 축구(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1991.06.05.~06.17)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및 참여하였음
- 1990년대에는 탈냉전이라는 대외환경과 남한의 북방정책 성공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북 우월감, 나아가 북한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적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북한의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의 활용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남북교류가 진행되었음

〈표 II-1〉 남북 경제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증감률, %)

구분	'90	'95	'00	'05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북한	-4.3	-4.4	0.4	3.8	-0.5	0.8	1.3	1.1	1.0	-1.1	3.9	-3.5	-4.1
남한	(9.8)	(9.6)	(8.9)	(4.3)	(6.8)	(3.7)	(2.4)	(3.2)	(3.2)	(2.8)	(2.9)	(3.2)	(2.7)

출처 : 「한국은행」, 2019년 7월 27일, 공보 2019-7-26호.

- 2000년대 들어와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 2000년 6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공연’과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 진행
 - 2000년 8월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와 12월 ‘금강산가극단 초청공연’ 그리고 2001년 ‘춘향전’ 방북 공연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와 선수단 355명이 부산에 방문하여 대회 기간 동안 부산에 체류하였음
 -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사회문화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은 지속

- 적으로 협의를 하고 관계를 증진해 나갔으며, 기존에 제3국에서 진행하였던 남북협약이 서울과 평양에서 직접 진행되었음
- 2000년대 남북문화체육 교류는 북핵이라는 새로운 안보위기 요인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남북한 모두 정치·군사 분야와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준수하였음
 - 2000년과 2006년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면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문화체육 중심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거세졌으며, 북한도 강경한 맞대응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남북 간 지속된 문화체육교류도 다시 경색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및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해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봄이 찾아왔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문화예술분야도 교류를 시작하였음
- 남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대통령 탄핵 및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라는 급작스러운 정치변화가 있었음
 -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김정은 후계자 등장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 기간 다양한 정치행보가 있었음
 -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니즈(Needs)가 맞닿았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오랜 시간 경색된 관계에서 벗어나 남북 문화체육 교류를 활발히 하였으며, 그 결과 낮은 단계의 남북문화체육 교류는 높은 단계의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냈음

2.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전개과정

-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는 국가 간 문화체육 교류와 다른 특수성(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주로 진행되어 왔음
- 분단 이후 1980년대까지 남북은 적대적 대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추진된 실질적인 문화체육교류 협력사업은 없었음
-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북 유화조치를 통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
- 1993년 남한의 정권변화와 ‘엄격한 상호주의’로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1998년 남한의 정권변화와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으로 남북문화체육교류도 다시 활성화가 되었으며,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추진된 남북한 예술단의 상호 방문 공연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교두보 역할을 하였음
-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 실험 강행으로 인하여 남북문화체육 교류는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였으며, 2008년 금강산 남북관광교류사업 당시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남북문화체육교류는 단절되었음
-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남북 문화체육교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를 남한에 참여시켰으며, 대회 폐회식 직전 북한의 권력 3인(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남한에 방문하여 남한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다시 문화체육분야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문화체육분야 교류를 교두보로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까지 진행되었음

〈Ⅱ-2〉 남북 문화·체육 분야 회담

날짜	회담명
1979.02.27. ~1979.03.12	남북탁구협회 회의(1차~4차)
1984.04.09. ~1984.05.25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체육회담(1차~3차)
1985.10.09. ~1987.07.15	서울올림픽 관련 IOC중재 남북체육회담(1차~4차)
1989.03.09. ~1990.02.07	90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 본 회담(1차~9차)
1989.12.01. ~1990.01.22	90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실무대표접촉 (1차~6차)
1990.11.29. ~1991.02.12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남북체육회담(1차~4차)
1991.02.21. ~1991.02.27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1차~2차)
1991.02.22. ~1991.02.26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1차~2차)
2002.08.17. ~2002.08.28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1차~2차)
2003.07.04. ~2003.07.06	대구 하계U대회 실무접촉
2004.06.23. ~2004.06.25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2005.04.22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
2005.07.26. ~2005.07.28	2005년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1차~2차)
2005.09.07. ~2007.04.10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1차~4차)
2005.12.07. ~2007.02.13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1차~4차)
2007.03.30	북한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2007.05.08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2007.12.17. ~2007.12.18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2007.12.28. ~2008.02.04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관련 실무접촉 (1차~2차)
2014.07.17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
2018.01.15	남북실무접촉
2018.01.17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2018.02.27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2018.03.20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2018.06.18. ~2018.12.14	남북체육회담(1차~3차)

출처 :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 통계 참조, 검색일 : 2020년 3월 17일.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현황과 이행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평화에 대한 위협을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제재하여 국제평화를 유지하려 하고 있음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9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0조 -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 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³⁾

-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 1993년 5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제재 결의 825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였음
-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1호)을 발사하였으며,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을 발사하였음

3) “유엔 헌장.” 검색일 : 2020년 3월 17일.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C%A0%9C%EC%97%B0%ED%95%A9%ED%97%8C%EC%9E%A5>).

- 2006년 7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제재 결의 825호에 이어, 1695호를 통해 북한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자원 등을 북한으로 이전 금지를 채택하였음
-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음
 -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⁴⁾를 채택하여,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및 대량살상 무기관련 품목, 사치품 등의 공급 및 판매를 금지 그리고 제재대상 지정,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음
 - 북한의 지속된 무력실험을 더욱 강도 높게 통제하기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09년 6월 12일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 금지, 금융 제재 강화 등을 명시하였으며, 의심 화물, 선박의 검색을 강화 실시 그리고 제재 대상을 단체 5곳과 개인 5명으로 추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은 2012년 4월 13일⁵⁾,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 실시
 - 이 같은 북한의 지속된 무력실험으로 인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하여 벌크 캐시(Bulk Cash) 규제, Catch-all 조항 등을 통해 북한으로 오가는 현금거래 제재를 확대 및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도발 시 중대조치를 결의하겠다고 표명 및 제재 대상도 단체 6곳, 개인 4명을 추가하였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강한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으며, 3월 9일 '핵보유국 지

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5) 2012년 4월 1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북한은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2013년 3월 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을 제정하였다.

위 영구화 선언',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 제정하였음

- 지속된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3년 3월 7일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하여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를 촉구하였으며,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를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 주의 강화,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하여 반입을 금지시켰음

○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실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실시

- 북한의 지속된 핵무력 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6년 3월 3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여 석탄, 철, 철광 수출을 제한(민생용 제외), 금, 희토류 등 광물 수출을 금지시켰으며, 그리고 북한에서 인출되는 모든 화물 검사를 의무화 실시,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및 제재대상 선박의 이착륙, 영공통과, 입항을 금지시키고 북한 원양관리 해운회사의 선박 자산을 동결, 나아가 북한 은행 해외지점 개설을 금지시켰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9일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도 2016년 11월 30일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 수출 상한선(연 4만불 또는 750만톤)을 결정하였으며, 유엔 회원국 내 공관원 규모를 축소시키고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이후 2017년 5월 29일까지 11차례(14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

- 2017년 6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하여 북한 제재대상 인원과 단체를 추가 지정하여 북한 제재 대상 인원이 북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였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7월 4일, 28일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 미사일을 발사 실험 강행

- 북한 무력 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을 통해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을 수출 제한하였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수 동결 조치 및 대북 신규 합영·합작사업 금지 조치 실시
- 북한의 모든 대외경제활동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실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여 대북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고 정제유를 연간 200만 배럴로 상한 설정,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콘덴세이트, Condensate)·액화천연가스 공급을 금지 하였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및 고용 금지, 섬유 수출(의류 임가공 포함) 금지, 신규 및 기존 대북 합영·합작사업 금지 실시
-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실험 실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12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대북 원유공급 제한조치 강화(정유제품 연간 50만 배럴, 원유 연간 400만 배럴 상한선)하였으며,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지시 및 북한으로 수출금지 품목(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을 확대 실시
- 유엔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개발 프로그램 중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을 위해 관련된 물품·금전·기술이전·협력 등 모든 활동 금지 실시
- 유엔은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협력체 설립·유지·운영 금지 실시
 -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 등 사전에 제재위가 사안별 승인 시 예외
-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고등제조생산기술 및 방법론 분야 과학·기술협력 금지
- 유엔은 해외 북한 노동자의 2년 내 북한으로 복귀 및 금융거래 금지 등 조치 단행

<표 II-3>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주요 결의

	날짜 및 결의	주요 내용
1	1993.5.11 UN안보리결의 대북제재 825호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핵사찰 수용촉구
2	2006.7.15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1695호	미사일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자원 북한으로 이전금지
3	2006.10.14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1718호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설립 북한에 장거리미사일 대량살상무기관련 판매금지
4	2009.6.12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1874호	모든 무기, 물자 수출금지, 금융제재 강화 화물선박 검색강화
5	2013.1.22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087호	현금흐름 규제 대북제재 확대강화
6	2013.3.7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094호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금수대상 사치품 목록 지정
7	2016.3.3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270호	석탄·철·철광석 수출제한, 북한 화물선박 검사 금지품목 적재의심 항공기 선박 이착륙, 영공통과 금지, 입항 금지
8	2016.11.30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321호	석탄수출 상한선 설정 (연 4만불 또는 750만 톤)
9	2017.6.2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356호	제재 대상 추가 지정
10	2017.8.5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371호	석탄·철·철광석·납·해산물 전면 금수 해외북한노동자수 동결 대북 신규 합영합작사업 금지
11	2017.9.11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375호	대북 원유공급량 동결, 정제유 상한 설정 해외북한노동자 신규 허가고용 금지 섬유 수출 금지
12	2017.12.22 UN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2397호	대북 원유공급량 제한조치 강화, 해외북한노동자 전원 24개월 내 북한 송환, 수출금지 품목 확대

출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9-5」 참조. 검색일 : 2020.02.05. (<https://www.sonosa.or.kr/download/20191211.pdf>).

2)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

- 우리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2010년 5월 24일 ‘5.24 조치’를 통해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를 금지하였으며,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 조치 단행
-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시 및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 및 3월 8일 ‘3.8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관련 모든 업무 중단 및 물품 반출입 중단, 차량운행 중단을 실시하였으며, 북한과 외환·금융 거래 금지 및 국내 자산 동결 조치 실시
-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정부는 2016년 12월 2일 ‘12.2 조치’를 통해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 수출통제 강화, 해운통제 강화, 출입제한 강화(북한방문 대량 살상 무기(WMD)관련자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실시
-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6일 ‘11.6 조치’를 통해 해외 소재 북한 은행 대표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관계자 18명에 대하여 추가로 금융제재를 지정하였음
-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실험이후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11일 ‘12.11 조치’를 통해 금융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⁶⁾하였음

6)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북한단체는 총 89개이며, 북한 개인은 109명이다.

<표 II -4>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현황

	날짜 및 결의	주요 내용
1	2010.5.24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5.24 조치	
2	2016.2.10	개성공단 관련 방북 중단, 물품반출입 중단 차량운행 중단
	개성공단 중단	
3	2016.3.8	금융제재 대상 지정 북한 기항 180일 내 외국선박 국내입항 금지
	3.8 조치	
4	2016.12.2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기항 1년 내 외국선박 국내입항 금지
	12.2 조치	
5	2017.11.6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
	11.6 조치	
6	2017.12.11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 (총 89개 단체, 109명 지정)
	12.11 조치	

출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9-5」 참조. 검색일 : 2020.02.05. (<https://www.sonosa.or.kr/download/20191211.pdf>).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예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2397호 25항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북제재 예외조항을 두었음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2017)⁷⁾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

25항. 결의안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확인되었으며, 이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활동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 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 요구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북한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⁸⁾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 검색일 : 2020.03.18. (<https://www.un.org/undpa/en/speeches-statements/22122017/resolution2397%282017%29>).

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 제25항 원문,” 검색일 : 2020.03.18. (<https://www.un.org/undpa/en/speeches-statements/22122017/resolution2397%282017%29>). 25. Reaffirms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 (2016), 2356 (2017), 2371 (2017), 2375 (2017) and this resolution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and cooperation, food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are not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 (2016), 2356 (2017), 2371

-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오랜 시간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치·경제·외교적 통제를 실시했음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2017년 대북제재 2397호 25항을 통해 대북제재 관련 면제 조항을 두었음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 25항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들의 업무 촉진 또는 결의 목표와 부합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 시에는 결의를 통해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⁹⁾ 발표 및 지침서류를 배포하였음
 -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표 II-5>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면제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17), 2375 (2017) and this resolution, and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ssistance and relief activities in the DPRK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stresses the DPRK's primary responsibility and need to fully provide for the livelihood needs of people in the DPRK, and decides that the Committee may, on a case-by-case basis, exempt any activity from the measures imposed by these resolutions if the committee determines that such an exemption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work of such organizations in the DPRK or for any other purpos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se resolutions;

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 검색일 : 2020.03.18.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ites/www.un.org.securitycouncil/files/1718_implementation_assistance_notice_7.pdf).

<표 II-5>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

구분	주요 내용
면제 요청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제공할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 - 북한 수혜자에 대한 설명 및 수혜자 선발을 위해 채택된 기준 - 위원회 면제가 필요한 이유 - 향후 6개월 이내에 북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될 것인지와 상품 및 서비스의 수량 그리고 관련 사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향후 6개월 이내에 북한으로의 이전 계획 일자 - 선적을 위한 입출항 항구를 포함한 계획된 운송 경로와 방법 - 신청서 제출 시 확인 될 수 있는 양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 이전과 관련된 금융거래 - 수량과 계획된 일자를 포함한 모든 계획된 운송 물품과 서비스의 목록을 담은 부속서류 -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금지된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면제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모든 국제 및 비정부기구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이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원국관련 국내규정 및 라이선스 요구사항에서 해당기구 및 제안된 거래를 면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에 면제 요청하는 모든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는 제안된 거래 및 관련 당사자의 모든 측면을 관할하는 회원국의 관련 규제 및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면제 요청 방법	<p>유엔 기관과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IFRC(국제적십자연맹) 및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과거처럼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가 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세 가지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국 : 결의안은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자할 때는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를 대신하여 회원국이 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제출한다. 2. 유엔 : 회원국이 그러한 요청을 위원회에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북한의 유엔 거주 코디네이터 사무소는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를 위해 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한다. 3. 위원회 비서 : 회원국과 북한의 유엔 거주 코디네이터가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가 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비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할 때 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전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기관은 과거에 북한이나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 한 경험이 있는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이며 / 또는 비정부기구는 관련 회원국에 의해 국가적으로 인정된다. ○ 북한에 제공될 지원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주민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면제 요청은 위에서 설명한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조 :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 참조.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접근방안 모색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과 같은 유엔의 대북지원 면제조건을 충족하여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지원 가능한 품목과 규제대상인 품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대북제재 2397호 25항」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규제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음
- 둘째,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검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으로 제공되는 모든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에서 국제체육경기대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 부산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부산이 부담하고 북한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북한이 부담하는 것을 적용해야 함
 -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며, 어떤 형식이든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함
- 셋째, 운송관련 검토
 - 부산시에서 국제체육경기대회와 같은 행사 또는 부산시 개최 국제행사에 북한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요 운송수단을 검토해야 함
 - 가장 좋은 방법은 2002년 경험처럼, 북한선박을 통한 부산항 입항방법임
 - 그러나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회원국에 북한의 금지품목 적재의심 항공기 및 선박 이착륙, 영공통화 금지, 입항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정부의 미국과 협조 그리고 통일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협조가 필요함

- 넷째, 인적교류관련 검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WMD 프로그램의 지원 및 촉진과 관련된 개인, 단체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대리자 및 조력자들에게도 유엔 회원국에 입국을 제한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사회문화체육 교류 행사를 진행할 시 부산을 방문하는 북한 대표단에 제재 대상 인원이 있을 시 부산시는 입국을 허락할 수 없음
 - 다만, 사회문화체육교류에 있어 제재 대상이 정치경제적 교류보다는 적지만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산시와 북한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시 우선적으로 북한과 협의하여 제재 대상인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전에 연락하여 단기간 예외 승인을 받고 부산시에서 남북사회문화체육 교류행사를 진행하여야 함
 -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제재 대상인을 한시적으로 입국 허용하여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를 실시하였음
 - 중앙정부와 유엔 그리고 미국 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제재아래 부산시는 대북 주민 생계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지자체 교류협력을 진행해야 함
- 부산시와 북한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치경제군사적 교류보다 비교적 탈정치적인 사회문화체육영역의 교류가 바람직함
- 특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체육경기대회를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이 필요함

제3장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현황

1. 역사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목적에 따라 크게 대북지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남북경협으로 분류되며, 행위자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로 분류되어 진행되어 왔음
 - 대북지원은 남북 간 정치적 민감도에 따라 정부 중심 혹은 지방자치단체 중심, 기업중심, 민간단체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었음
 - 남북경협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부 중심의 기업지원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었음
 - 정부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원규모가 크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반면, 민간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 영향력은 적으나 지원규모가 작고 지원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중간정도로 정부보다는 정치적 영향을 덜 받으면서 민간단체보다는 큰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 같은 배경아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정부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시기에는 민간중심 및 지방자

치단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시되었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를 확대를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¹⁰⁾를 발표하면서 활성화 되었음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정부는 1998년 6월 남북교역 반출입 고시 정과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1998년 11월 18일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었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북한과 면적을 맞닿아 있는 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1998년 9월)’를 제정하였으며, ‘강원도남북교류협력지금조례(1998년 12월)’를 제정하였음
 - 2000년 12월 당시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육로로 원산과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와 씨감자 원종장 건설, 솔잎흑파리 공동 방제, 연어자원 보호 증식과 관련한 합의를 체결하였음¹¹⁾
 -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북한에 감귤 100톤을 지원(1999년 1월)하였으며, 당시 제주도의 감귤 풍년으로 내수 진작과 대북지원 목표아래 진행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북한 지역적 특성을 통해 자매결연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중앙집권적 체계인 북한에서 각 지방정부와 남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여도 결국 북한의 남한 교류협력사업 담당은 중앙기관인 노동당 통일선전부가 직접 관장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각 시도 인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2000년 7월 행정자치부는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 처리지침’을 시행

10)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방북 전면 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11) 최대석, 이종무, 박희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2009년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9), p. 53.

-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 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사업 진행 전 북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각 지방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전 각 지방에서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 그리고 통일부에 사업승인 신청, 사업추진 후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업분야의 대북인도적 사업에 집중하였음
- 경기도는 민간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평양 식품가공공장을 착공(2004년) 및 준공(2005년)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및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 평양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2003년)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황해도 신천군 백석리에 농기계 지원(2005년)과 함께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2005년)하였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대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와 협력은 대북사업에 있어 경험부족으로 인한 위험부담 감소와 비용절감 목적아래 실시되었음
- 민간단체는 북한과의 안정된 관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음
- 문학의 경우 남북의 소통·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1961년, 1980년, 1989년, 2005년 네 차례였음¹²⁾
 - 교류 제안만 이루어진 것이 1961년, 1980년, 1989년이었고, 실제 이루어진 것은 2005년, 2006년임
 - 국민의 정부의 6.15공동선언(2000년)이 남북 문학 교류의 시발점이었던 2005년 민족작가대회 개최, 2006년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 2008년

12)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 평화 10:2 (2018): 8, 21-22.

『통일문학』 발간 사업이 실현되었음

- 남북 문학 교류·협력 사업의 출발점은 2005년 민족작가대회와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초기 연합단계까지 진척한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¹³⁾
- 첫 번째로 문학교류의 본격적 시작을 들 수 있음
 - 2006년 10월 30일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공식 출범하여 남북 교류사를 통틀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민간인 단일조직이 출현하게 되었음
- 두 번째로 한겨레의 문학 영토 확장이라는 상상적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음
 - 북한문학이 그 자체로 근대문학 또는 현대문학이며, 코리아반도문학의 일부인 지역문학, 지방문학이 되는 토양이 갖춰졌음
-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의 문학관, 세계관 사이의 차이는 존재함
- 네 번째로 문학 등 사회 문화 분야가 통일 내지 통합의 단계별 과정에서 꼭 정치 군사적 교류·협력의 종속변수에 있지는 않음
- 체육의 경우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1963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회의」을 위한 회담을 시작으로 현재(2020년 3월 1일)까지 아래 <표 Ⅲ-1>과 같이 총 55회 진행되었음

<표 Ⅲ-1> 남북체육회담 현황

구 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2020 년대	계
남북체육 관련 회담	3	4	16	14	12	6	0	55

출처 :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 “회담통계”, 검색일 2020년 3월 1일,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e1/usrCmsStat/List.do?tab=1>.

13)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 평화 10:2 (2018): 23-24.

- 그러나 지속된 북한의 무력실험(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발사)과 제1차 북핵 실험(2006년 10월 9일)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2006년 10월 14일)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¹⁴⁾를 채택하여,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및 대량살상 무기관련 품목, 사치품 등의 공급 및 판매를 금지 그리고 제재대상 지정,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북한 개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음

1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제도

1)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방문(법 제9조), 주민접촉(법 제9조의 2, 법 제30조, 법 제10조), 교역(법 제13조 내지 제15조), 협력사업(법 제17조, 제18조)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남북교류협력법을 수반하는 결재업무, 수송장비 운행, 통신역무의 제공, 검역(법 제23조), 보조금지급(법 제24조), 업무위탁(법 제25조의 2), 행정조사(법 제25조), 전자적 처리기반구축(법 제25조의 2), 지도·감독(법 제25조의 4)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준용법률, 벌칙, 과태료 등의 별도의 조문도 있음
- 위와 같은 업무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협의체를 설치하였음
-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남북 간의 방문(법 제9조)
 - 남북한 방문 시에는 방문승인이 필요하며, 방문 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에는 여권과 유사하게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사용 가능한 ‘복수방문증명서’가 있음
 - 통일부장관이 방문 승인 시 북한 또는 남한 체류 방문기간과 북한방문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둘째, 주민접촉(법 제9조의 2, 법 제30조, 법 제10조)
 -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사후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 방문 목적 내에서 행동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접촉신고를 요구하지 않음

○ 셋째, 교역(법 제13조 내지 제15조)

- 남북한 간의 물품·용역 등의 반출·반입 등의 거래는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교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 반입·반출관련 승인 절차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로 규정
- 남한과 북한 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 또는 제3국을 거쳐서 남한과 북한 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품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별적인 승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포괄적 승인할 수도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일상생활용품 등이나, 남북한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한 물품 등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규정함

○ 넷째, 협력사업(법 제17조, 제18조)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함
-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동 법 17조 제1항 1호 내지 5호에 기재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그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실제로 실시하였음

○ 1998년 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이후 경기도에서 2001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남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상남도-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경상북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각 지방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III-2〉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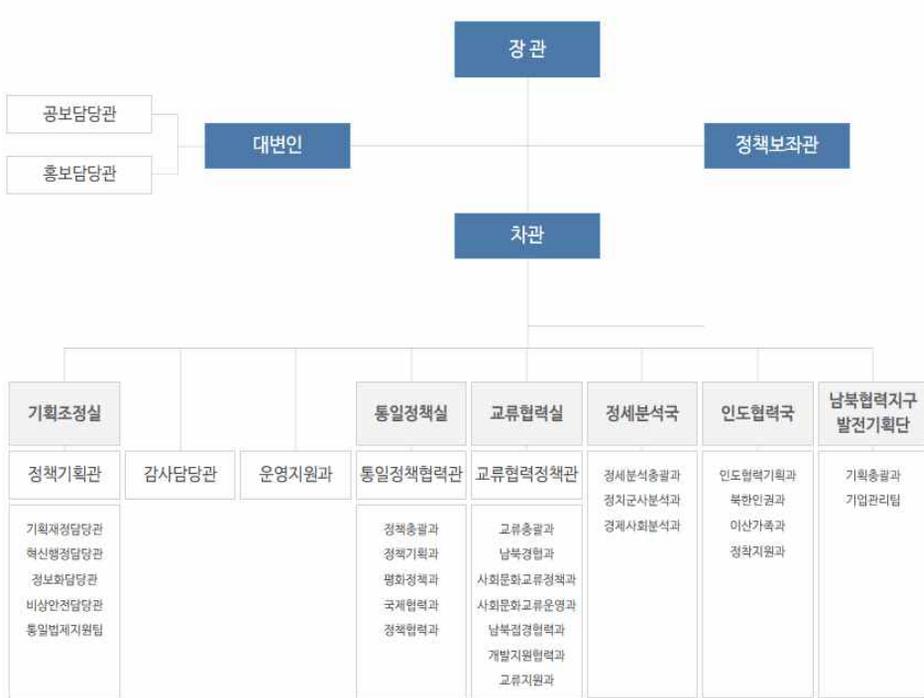
구분	조례 제정일	법규명
강원도	1998.9.9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
	2018.5.4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경기도	2001.11.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2003.6.5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04.7.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2004.11.8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경상남도	2005.4.7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대구광역시	2005.8.10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광주광역시	2005.11.25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2006.4.6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07.5.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2007.7.11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2007.12.28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2008.1.10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충청북도	2008.2.22	충청북도 남목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2.11.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대전광역시	2008.6.20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2011.11.10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2015.7.3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출처 : 나용우, 홍석훈, 박은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18-04, (서울 : 통일연구원), p. 23. 참조.

2)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직

- 2020년 통일부는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였음
- 통일부의 기존 2실(통일정책실과 기획조정실)에서 3실(통일정책실과 기획조정실, 교류협력실)로 변경
- 통일부의 교류협력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및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그림 Ⅲ-1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출처 : 통일부, 조직과 기능, 검색일 : 2020.03.1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about/organization/cooperationoffice>

- 개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
 -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 남북한 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 남남북한 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 그 밖에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Ⅲ-3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실 남북협력추진단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및 창조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및 농업정책과, 산림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및 산림관리과 산림병해충방제,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전라남도	자치분권과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및 동해안정책과
경상남도	행정국 대민봉사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출처 : 나용우, 홍석훈, 박은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18-04, (서울 : 통일연구원), p. 27. 참조.

3) 남북 교류협력 관련 재정 안정성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3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은 아래 <표 III-4>와 같음

<표 III-4>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2020년 3월기준

(단위:백만원)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등	총조성액
합계	486,211	13	1,570,400	988,020	14,642,940
2020. 3	47,000	-	117,000	1,355	165,355
2019	100,000	-	203,000	6,574	309,574
20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20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20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출처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검색일 : 2020.04.1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

- 2020년 3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은 아래 <표 III-5>와 같음

<표 Ⅲ-5 >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 2020년 3월 기준

구 분	'19계획 (A)	'20계획 (B)	증감 (B-A)	단위:백 만원
				%
남북협력기금 총계	1,490,298	1,902,762	412,464	27.7
○사 업 비	1,103,583	1,202,991	99,408	9.0
1. 통일정책	6,341	4,125	△2,216	△34.9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41	4,125	△2,216	△34.9
2. 남북사회문화교류	20,530	22,364	1,834	8.9
- 사회문화교류지원	20,530	22,364	1,834	8.9
3. 인도적문제해결	572,345	620,921	48,576	8.5
- 이산가족교류지원	39,510	28,070	△11,440	△29.0
- 구호지원	81,539	141,759	60,220	73.9
- 민생협력지원	451,296	451,092	△204	0.0
4. 남북경제협력	504,367	555,581	51,214	10.2
- 경제교류협력보험	9,500	4,750	△4,750	△50.0
- 경험기반(무상)	309,281	236,970	△72,311	△23.4
- 경험기반(유자)	119,655	252,025	132,370	110.6
- 경제교류협력대출(유자)	23,750	18,000	△5,750	△24.2
- DMZ 평화적이용	10,990	12,645	1,655	15.1
- 개성공단 운영대출	15,071	15,071	-	0.0
-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20	16,120	-	0.0
○ 기금운영비	2,739	2,643	△96	△3.5
- 기금관리비	100	90	△10	△10.0
- 위탁수수료	2,250	2,250	-	0.0
- 사업관리비	389	303	△86	△22.1
○ 공자기금원리금상환	303,873	647,507	343,634	113.1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203,000	548,600	345,600	170.2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00,873	98,907	△1,966	△1.9
○ 여유자금운용	80,103	49,621	△30,482	△38.1

출처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검색일 : 2020.04.1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

○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은 아래 <표 Ⅲ-6> 와 같음

<표 Ⅲ-6>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2020년 3월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자금종류	'15	'16	'17	'18	'19	'20. 3월	합계	
남북교류 협력지원	인적왕래지원	-	-	74	2,496	11	-	2,581	
	사회문화협력지원	6,135	2,303	3,599	7,481	3,673	745	23,936	
	경제교류협력보험	77	295,353	97	9,604	828	-	305,959	
	소 계	6,212	297,656	3,770	19,581	4,512	745	332,476	
경상사 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781	4,122	4,193	4,154	7,020	658	24,928	
	이산가족교류지원	5,241	1,620	689	5,097	4,443	43	17,133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인도적지원	12,127	633	1,322	2,661	31,394	476	48,613
	경협기반조성(무상)	23,440	149,413	55,767	177,659	25,082	4,186	435,547	
	소 계	45,589	155,788	61,971	189,571	67,939	5,363	526,221	
합 계		51,801	453,444	65,741	209,152	72,451	6,108	858,697	
인도적사업(용자)		-	-	-	-	-	-	-	
남북교류 협력지원	교역경협자금대출	-	72,806	-	-	-	-	72,806	
	-교역대출	-	-	-	-	-	-	0	
	-경협대출	-	72,806	-	-	-	-	72,806	
	경협기반조성(유상)	3,556	3,201	2,656	2,574	2,574	651	15,212	
경수로사 업	경수로사업대출	-	-	-	-	-	-	-	
합 계		3,556	76,007	2,656	2,574	2,574	651	88,018	
총 계		55,357	529,451	68,397	211,726	75,025	6,759	946,715	

출처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검색일 : 2020.04.1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

3. 중앙정부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

1) 문화 분야 교류협력¹⁵⁾

-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남북 문화 분야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후 최초의 남북 문화 분야의 교류는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임
 -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평양과 서울에서 서울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이 각 2회의 공연을 하였음
- 1985년 상호 방문 공연의 경우 첫 교류라는 의의는 있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 교류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문화 분야에서 체제 경쟁의 양상을 보임
- 1990년대 들어 세계사적인 냉전체제 해체 분위기에서 남북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시작됨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992년 5월까지 여덟 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과정에서 환영 행사로 대규모의 특별 공연이 거행되었음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에는 체육 분야와 아울러 공연, 전시, 학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되었음
 - 1990년 10월과 12월에 ‘평양 범민족통일 음악회’와 ‘90년 송년 통일전통 음악회’가 성사되었음
- 남북은 세계사적 냉전 해체의 분위기에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을 발표시키면서,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음

15)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17-36.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남북 문화 분야 교류의 기대 속에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분야가 추진되었음

〈표 Ⅲ-7〉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전후 남북 문화 교류의 추진 현황

행사명	일시 및 기간	행사내용
제1회 범민족통일 음악회	1990.10.18. ~ 23	- 윤이상의 주선으로 남측 17명(서울전통음악연주단 황병기, 오정숙, 김덕수, 노동은등), 북측 음악인 100명, 미주 음악인 500명이 참가한 음악공연 - 평양2.8문화회관, 동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등 8곳에서 김월하의 평시조 <마음이 지척이면>, 황병기의 <가야금산조>, 오정숙의 <육자배기>, 김덕수의 <사물놀이> 등 16곡 연주
'90송년통일전 통음악회	1990.12. 9 ~12	- 윤이상의 주선으로 북한 평양민족음악단 성동춘 단장 등 33명이 참가한 남북한 합동음악 공연 - 서울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 - 제1부에는 국립국악원 정악원 연주단 <표정만방지곡>, 성창순의 <성주풀이>, 광주시립국극단의 <심청가> 중 부녀상봉대목, 국립무용단의 타악 <복의합주> 등 연주 - 제2부에서는 평양민족음악단의 <배따라기>(김진명), <영천아리랑>(리성훈), 민족가극 <춘향전> 중 <사랑가>(리순덕, 리성훈의 혼성이중창), 옥류금 독주 <도라지>(김길화) 등 20여곡 연주 - 판문점을 통해 입국, 민간교류로서는 첫 방남 공연 - 범민족통일음악회 화답 사업
한겨레올림	1991. 3.21	- 남북화합음악제로 남한 윤인숙, 황병기, 이기영, 북한평양음악무용단 참가
환동해국제 예술제	1991. 5. 1 ~5	- 남한 중앙국악관현악단 50명과 북한 평양음악무용단 50명이 참가하여 일본 후쿠이에서 개최한 합동 공연
통일예술축제	1992.8.17. ~18	- 광복절 기념으로 러시아 사할린에서 개최된 남북합동공연

출처 :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21

- 1990년대 남북 영화 교류는 장르적 대중성과 복제 필름의 형태가 갖는 운반의 용이성으로 인해 제3국의 영화제나 TV 방영을 통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짐
 - 1990년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남북영화제'에서 남북한 영화인 39명이 초청되었고 북한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도라지꽃>, <남한 영화 <미친 사랑의 노래>, <코라안 커넥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등 7편이 상영됨
 - 북한미술전-그리운 산하, 광복 50년 북한미술의 오늘 등과 같은 미술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했음
 - 그밖에 중국, 일본을 포함한 제3국을 통한 국제학술회의, 종교 분야의 교류, 남북공동사진전 등이 성사되었음
-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김일성 사망 등의 문제로 남북관계는 조정기를 갖게 됨
 - 김영삼 정부 들어 유일하게 성사된 문화 분야 행사는 1997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의 북한 지역 문화유적 답사 및 조사 사업이었음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 문화 분야의 교류는 가장 활성화 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5월에는 남북 합동 사진전이 2년여 작업 끝에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음
 -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공연단체로는 7년 만에 평양 봉화예술극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공연을 가졌음
 - 같은 해 11월에는 제1회 윤이상통일음악회에 남한 연주단이 참가했고, 1999년에는 원로 화가 복낙 산하 기행,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평양),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등이 이어졌음

<그림 Ⅲ-2 >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



1990년 북한 평양 2·8문화회관등 8곳에서 진행된 제1회 범민족통일음악회에서 서울전통음악연주단 17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연주하였음

출처 : 「KBS」, 검색일 : 2020.03.05 <http://office.kbs.co.kr/tongil/archives/32468>

<그림 Ⅲ-3 > 1992년 통일예술축제



1992년 8월 16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공연한 남북대중예술인들

출처 : 「동아일보」, 검색일 : 2020.03.0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814/73040682/4>

〈표 Ⅲ-8〉 김대중 정부 초기 남북 문화 교류의 추진 현황(1998~1999년)

행사명	일시 및 기간	행사내용
남북공동 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렌즈로 본 조국)	1998. 5.29~6.11	- 평양,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공동 개최 - 한국 사진학회, 조선사진작가동맹 공동 주최 - 남 20명, 북 46명 참여 - 사진 전시, 사진집 2,000부 발간 - 남북협력기금 3,000만원 지원
리틀엔젤스 평양 공연	1998. 5.2~12	- 한국문화재단(이사장 박보희),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주최 - 3회 공연에 예술단원 38명 포함 66명 참가 - 평양봉화예술극장, 만경대 학생소년공존에서 채춤, 북춤, 장고춤, 농악무를 비롯한 <민속무용조곡>과 <가야금병창>, <아리랑>, <군밤타령>, 기타합창 <휘파람> 등 무용과 음악으로 종합 구성, 한국전통 무용, 한국가곡, 세계민요 연주 - 순수민간교류에 의한 방북 공연
제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	1998. 11.3~5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윤이상 연구소 주최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최학래 사무총장, 김덕수 사물놀이패, 김현미, 안동혁, 윤인숙, 안숙선 등 남측 14명, 북한 국립교향악단, 윤이상 관현악단, 조청미 등 참가 -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개최 -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지휘 김병화, 박범훈),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풍물가락, 북측 조청미의 가곡, 남측 김현미, 안동혁의 연주 등으로 <그네>, <사랑가>, <광주여 영원히> 등 18곡 연주 - 윤이상 서거 3주기 추모행사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로저 클린턴 평양 공연	1999. 12.15	- (주)코래콤,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주최 - 남측 로저 클린턴, 패티김, 태진아, 설운도, 최진희, 핑클, 잭스키스 등, 북측 조혜경, 김명순, 석란희, 리영옥, 전해영 외 인민배우·공훈배우 등 참가 -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개최 - <이별>, <사랑의 미로>, <봉선화> 등 20곡 연주 -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녹화한 것을 SBS에서 편집 방영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1999. 12.20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SN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공동 주최 - 제1부 남측(현철, 신형원, 안치환, 김종환, 오정해 등), 제2부 북측(전혜영, 리경숙, 주장혁, 로용권, 김순희, 박미향, 김숙녀 등) 참가 - 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백만송이 장미>, <아침이슬>, <눈물 젖은 두만강>, <봄맞이 처녀>, <손에 손잡고> 등 연주 - MBC에서 녹화 방영

출처 :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24

<그림 Ⅲ-4 > 1998년 남북공동 사진전



1998년 남북 사진작가의 사진 전시 및 사진집 발간

출처 : 「e영상 역사관」, 검색일 : 2020.03.05.

http://ehistory.go.kr/page/view/photo.jsp?photo_PhotoSrcGBN=PT&photo_PhotoID=26614&detl_photodtl=210572

<그림 Ⅲ-5 > 평화친선음악회-로저클린턴 평양 공연



2000년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평화친선음악회 공연 개최

출처 : 「SBS」, 검색일 : 2020.03.05.

<https://programs.sbs.co.kr/enter/pyongyangconcert/clip/52890/22000269069>

-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 직전에도 이를 축하하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공연’과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
 - 다만 ‘8·15민족공동행사’ 방북단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 북미 관계 경색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약 1년 간 대규모 문화예술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표 Ⅲ-9〉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문화 교류의 추진 현황

행사명	일시 및 기간	행사내용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서울공연	2000. 5.2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재단, (주)평화자동차(사장 박상권) 공동 주최 - 최희(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비서, 단장 등 102명(공연단 78명) 참가 -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경음악 <백두의 발굽소리>, 4중창 <회양날리리>, 민속무용 <꼭꼭 숨어라>, 장구 제주 <승전고를 울려라>, 징새납 독주 <모란봉> 등으로 구성된 총 5회 공연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매회 2,200여 명 관람,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의 답방 형식 - 순수민간교류에 의한 방남 공연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2000. 5.29~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21(회장 김보애) 주관 - 김유식(평양교예단 예술부단장) 등 102명(교예단원 70여 명) 참가 -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평양교예단의 14개 종목 총 11회 공연 - 평균 12,000여 명 관람, NS21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간 합의에 따라 개최 - 1999.12.23.~24 남북통일농구대회 때 막간 공연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2000. 8.1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사장 박권상) 주최 - 남 106명, 북 하이북(조선국립교향악단장) 등 132명 참가 - KBS홀 및 예술의 전당에서 총 4회 공연, <동무생각>, <봉선화> 등 노래와 무용공연 - 총 7,400여 명 관람 - KBS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합의에 의해 성사된 행사
금강산가극단 공연	2000. 12.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리틀엔젤스회관 - 한국문화재단 주최 - 음악 무용 공연 - 조총련 소속 금강산 가극단 단장 이장준 등 82명 방남 - <아리랑>, <봉선화> 등 노래, 무용 공연

출처 :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25

- 김대중 정부에서의 남북 문화예술교류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과 평양에서의 직접 접촉이 자주 이루어졌음
 - 가수 김연자는 2001년과 2002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평양, 함흥)’에서 공연하였으며, 윤이상음악연구소 부소장 리철우는 방한 후 강연(2001.12), 재일 금강산가극단 지휘자, 장새납 연주자의 방한 후 공연(2002년 3월), 북한 국적의 중국 미술작가 손국연의 방한 후 퍼포먼스(2002년 3~4월) 등 개별적 차원의 방북과 방한 공연, 전시 등이 있었음
 - 영화와 영상물 부문도 교류가 활발하여 북한 영화는 1998년 9월(2편), 1999년 1월(1편), 2000년 6월(2편)에 TV를 통해 남한에 상영되었고, 2000년 7월에는 북한 영화 ‘불가사리’가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음
 - 2000년 11월에는 민화협 초청으로 남한 영화계 인사(영화진흥위원회)들이 방북하여 북측과의 영화 교류 문제를 협의하였음
 - 2001년 8월에는 북한 ‘살아있는 령혼들’(2000년 8월 반입 승인) 특별 상영, 2002년 8월에는 춘사 나운규 탄생 백주년을 앞두고 북한 측과 공동으로 각종 <아리랑> 기념사업 추진에 합의했고, 2002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이두용 감독의 <아리랑> 시사회가 개최되었음
-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펼쳤음
 - 문화예술 교류사업의 특징으로 큰 틀에서 대규모 체육행사(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사회단체, 재야단체가 주관한 행사(남북노동자통일대회, 남북통일농민대회), 그리고 국경일, 기념일 공동행사(3·1 절 민족대회, 6·15남북공동행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통해 예술 공연이나 민속놀이로 명맥을 이어갔음
- 2003년 8월 KBS 평양노래자랑(8.9~12)에 이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8.21~31)에서는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8.29)와 선수촌 내 취주악 공연이 있었고, 9월에는 청년학생 역사유적답사단 방북(9.22~26)이 이루어졌음
 - 2003년 10월 초에는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행사로 통일농구대회와 더불어 남한 대중가수와 북한 예술인들의 통일음악회(10.6)와 서라벌예술

단의 공연이 이루어진 데 이어, 10월 말 제주도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10.23~27)에서는 민속경기와 미술·수공예품 전시가 있었고, 11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합동 수석전시회(11.20~22)가 개최되었음

- 2004년에는 고구려 문화전(4.9~6.20)이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인천에서 개최된 6·15남북공동행사(6.14~17)에서는 단축 마라톤과 함께 남북 예술단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동북아사진문화교류협회 주관으로 평양에서는 남북 공동사진전인 ‘꽃으로 본 내나라’ (6.14~20)가 개최되었음
- 동년 9월에는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하는 남북공동사진전(9.11~12)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음

-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 간 왕래가 제한되었던 시기도 존재함
 - 2004년도 하반기에 베트남으로부터 468명의 탈북민 수용 조치와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으로 인해 동년 8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민족작가대회¹⁶⁾, 9월에 평양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가극 ‘금강’ 공연 등이 무산되었음
 - 다만 종교부문 사업인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 등은 꾸준히 추진되어 동년 11월에 금강산 신계사 낙성식이 거행되었고, 남북 민간교류 엔지오(NGO) 지우다우가 추진한 남북 대학생 교류행사와 민화협의 고구려 유적사업도 성사되었음
- 2005년 6월 6·15통일대축전 평양 개최 기간 중 단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당시 김정일 총비서와 면담 후 10여 개월 만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 되었음
- 2006년 7,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단행으로 핵 문제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남북은 굼직굼직한 행사를 꾸준히 성사시켰음
 - 일본에서 반환 받아 보존·복원을 거친 북관대첩비는 3월 1일자로 개성

16) 문학 간 왕래인 2004년 8월 23일 열리기로 한 작가대회는 2005년 개최되었으며, 이듬해 ‘6.15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하였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등을 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다 진전된 남북 교류와 협력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불)가능성: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 평화 10:2 (2018): 26.

성균관에서 북측에 인도되어 원래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에 안치되었고, 4월에는 금강산에서 윤이상음악회가 개최된 데 이어, 북한의 제25차 윤이상음악회에 남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 국립중앙박물관 주최로 6월부터 10월까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북측의 국보급 문화재 90점을 서울과 대구에서 전시하였음
- 7월과 8월에는 남북교류공예전과 남북문화재도서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민간 차원의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 역시 각 지역에서 열렸음
- 평양 안학궁터 발굴, 고구려 벽화고분 조사 등의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사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그림 III-6 > 2003년 KBS 평양노래자랑



2003년 KBS 평양노래자랑, 남한의 송해와 전성희가 사회를 보았음

출처 : 「KBS」, 검색일 : 2020.03.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3142&viewType=pc>

- 2007년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이 가장 저조한 시기였음
 - 다만 부분적으로 남북 공동행사 중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된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 안성시 대표단이 평양을 방북(2007.11.20~23)하여 남사당 풍물단의 공연이 이루어졌음
 - 창원, 김해, 울산 등지에서도 민간 차원의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북한공예 특별전이 개최되기도 했

음

- 2007년의 여러 사업 중 넓은 의미에서 문화예술 교류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2007.09.03.~11.09)’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 전문가 등 10여 명이 발굴, 조사하였고 이 기간 중에 고구려 벽화 공동보존 작업 등도 함께 이루어짐
 - 2007년에 개봉되거나 방영된 영화 및 방송 사업은 영화 <황진이>와 북한 드라마 <사육신>이 있는데, 모두 흥행과 시청률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고, 2007년 5월 서울연극제와 거제 전국연극제에서 공연하려던 북한 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무산되었음
- 다만 2007년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정부당국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천명되었고,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이 중요함
-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이 선언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가운데에 문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 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 남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10.4선언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는데 문화교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했음
- 북한은 여러 정치적인 굴곡에서도 영화, 출판, 저작권, 문화기술 등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한 참여를 보였음
 - 2003년 9월 말과 10월 초 이두용 감독의 <아리랑> 제2차 평양 시사회에 이어 남북 영화 합작이 추진되었고, 평화문제연구소가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편찬한 조선향토대백과 20권이 완간(2005.04), (사)통일맞이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저작권 대리업 관련 합의서 체결, 북한 소설 및 동화 47편 국내 출판, 도서출판 보리의 '조선고전문학선집' 연속 출간, 예맥출판사의 북한 전통 건축물 조사·실측 보고서 발간사업 등은 북한의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었음
- 북한은 기본적인 기자재만 구비가 되면 인적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문화기술(CT) 산업에 주목하고, 남한의 적극적 지원을 모색하였음

- 2001년 하나로통신이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3D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를 공동 제작한 후, 북한은 이때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2002년 6월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북한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고, 이후 컴퓨터 그래픽 작품 제작만을 전담하는 '컴퓨터3D창작단'을 설립하여 외국 만화영화 수주에 힘쓰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비에 들어감
- 남북 간에 관계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기존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사업이나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법회와 같은 장기지속사업은 그 근간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지만 신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함
- 다만 2011년 8.15를 기점으로 일부 비정치적, 군사적인 사회문화교류의 유연화 방침에 따라 종교, 예술 분야의 대북사업이 재개됨
 - 2011년 9월 3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계종 참여하에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봉행되었음
 - 2011년 9월 12일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은 조선예술교류협회와 '남북 합동 교향악단 연주 관련 의향서'를 평양에서 체결하였음
 -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긴급복구조사가 이루어졌음
-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발생으로 이후의 남북관계는 정체를 보임

2) 체육 분야 교류협력

- 중앙정부차원의 진행된 남북체육회담을 바탕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높은 수준(중앙정부차원)의 주요 남북체육교류는 다음과 같음

○ 김일성 시기 남북 중앙정부차원 체육교류

-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출전(1991.04.24.~05.06)과 1991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출전(1991.06.14.~06.30) 사례임
- 1990년대 초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1990년 동서독이 통일하고 1991년 소련의 붕괴 그리고 북한과 우호적인관계를 맺어왔던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되었음
-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탈정치적인 스포츠를 활용하여 남북접촉 및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해 높은 단계의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하였으며, 높은 단계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를 도출하였음¹⁷⁾

<그림 Ⅲ-7 > 김일성 시대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 구성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 '코리아'로 출전한 남한의 현정화 선수와 북한의 이분희 선수

출처 : 「중앙일보」, 검색일 : 2020.03.05 <https://news.joins.com/article/8538672>

17) 당시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북방정책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위기감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다.

<그림 Ⅲ-8 > 김일성 시대 1991년 남북 축구 단일팀 구성



199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 단일팀 '코리아'로 출전한 남북한 축구 선수들

출처 : 「연합뉴스」, 검색일 : 2020.03.05 <https://www.yna.co.kr/view/IIS20050628001600999>

- 김정일 시기 남북 중앙정부차원 체육교류
 - 2000년 「6.15 남북정상선언」 이후 남북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에 305명의 선수단과 355명의 응원단을 부산에 파견하였음¹⁸⁾
 -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2001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당선과 2001년 '9.11테러'로 인하여 미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WMD)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였음
 - 반면에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하여 남북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간 회담을 진행하였음
 -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은 오랜 시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18)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 올림픽대회', 2005년 '마카오 아시안게임',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한반도기 사용과 개막식 때 동반입장을 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한 부분적 개혁개방 정책(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을 실시하였음

<그림 Ⅲ-9 > 김정일 시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북한 참여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와 대규모 응원단이 북한 방문 및 체류

출처 : 「한국일보」, 검색일 : 2020.03.05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407072027027732>

- 김정은 시기 남북 중앙정부차원 체육교류
 - 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2018.02.09.~.02.25)에 북한은 남북단일팀 구성 및 동계올림픽 참여
 -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남한은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새로운 정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17.07.05.)가 시작되었으며,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이후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등장한 김정은은 전 세계에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정상외교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 이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김정은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와

남북단일팀 구성에 회신하면서 남북체육교류협력이 진행되었음
- 이후 남북고위급 회담,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은 전세계에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였음

<그림 Ⅲ-10 > 김정은 시대 2018 남북 단일팀 구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출처 : 「TBS」, 검색일 : 2020.03.05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299422&seq_800=10278206&typ_800=8

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

1) 문화 분야 교류협력¹⁹⁾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문화 분야 교류협력 사업은 대북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비해서 늦은 편임
 - 중앙 정부 간의 긴장과 화해 등 남북관계 영향 아래에서 다소 더딘 교류협력 과정을 보여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이 활발한 반면, 문화 분야의 교류 사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초기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이념적 성격이 배제된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적극 추진됨
 - 경기도의 대북교류협력 사업은 3단계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중 1단계 사업은 문화예술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북한과의 교류협력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강원도는 2001년 고려건국(태봉국) 배경에 관한 학술회의를 통해 궁예도성의 재조명 의미를 살펴보고, 2001년 5월 남측 지역 현지조사와 7월 방북하여 북측 지역을 공동조사 하였음
 - 전라북도 남원시는 2000년 3월 (사)남원춘향문화선양회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창구로 춘향창극단의 평양공연을 합의하여 2001년 2월 북한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가극춘향전’을 공연하였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북측에 제안했음에도 실제 성사된 사업을 많지 않음
-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성사 사업이 여전히 많았음
- 성사된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2002년 9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즈

19)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55-58.

음에 지역시민단체(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위한 통일아시아드 시민연대)를 통해 범시민적 차원에서 공식서포터즈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침

- 통일아시아드시민연대를 부산시가 추진한 ‘북측 대표팀 부산 시민 서포터즈’에 참여시켜 국제행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례를 만들었음

- 당시 남북한 선수단이 개막식 때 한반도 단일기 아래 단일 복장으로 공동 입장한 장면은 상징적 사례가 되었고, 북측 선수단을 따라 온 미녀응원단의 모습은 남북 이질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 부산시는 이후 2003년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 영화를 출품하기로 합의함

- 북한영화 특별전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영화 <내고향> 등 7편을 상영함

- 2003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북측은 선수단과 응원단을 참가

- 2004년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인천시는 기념행사를 위해 방남하는 북측 대표단 103명을 맞았음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예술단원이 다수를 이루는 북측 대표단은 각종 통일 마라톤, 연극제, 음악회, 전시회 등을 통해 북측의 문학예술을 남측에 소개

- 이를 계기로 인천시 대표단 42명은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방북을 통해 북측 민화협과 체육·문화·예술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합의

- 나아가 북측과 신뢰를 형성한 인천시는 2005년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및 협력단 144명을 맞아 통신, 방송, 의료 등 각종기자재 지원 및 숙식, 선물 지원을 통해 지속적 교류협력을 추진

- 제주시는 2003년 10월 24일 남북 공동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을 개최

- 이 축전은 2003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원웅 국회의원이 북한 민화협 측에 민간차원의 첫 체육행사를 남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사

- 강원도는 2003년 12월 북측의 민화협과 북강원도인민위원회와 향후 교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를 체결하고, 그 결과 중 하나로 2005년 6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음
- 서울시는 경기도가 추진했던 윤이상음악제를 2006년 4월 금강산에서 개최하였고, 나아가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사업에 참여하였음

2) 체육 분야 교류협력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북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서울시는 전통적으로 진행했던 남북 ‘경평축구’ 교류를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준비하고 있음
 - 1929년 10월 8일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첫 경평축구는 서울과 평양 간의 도시대항 축구경기였으며, 지금의 프로리그가 있기 전 서울과 평양 당시 조선의 최고 빅클럽 간에 진행되었던 체육교류 경기였음
 - 당시는 각 도시를 대표로 하는 매우 큰 의미의 경기였는데, 광복 이후 두 차례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그 교류는 단절되었음
 - 1990년 ‘경평축구’ 부활개념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각각 1차례씩 진행되었으며, 2002년 9월, 2005년 8월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 진행되었음
 - 2018년 8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통해 서울시는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서울시는 서울-평양 축구대회 정례화와 올림픽 공동유치 기원을 위한 남북체육교류자문단을 구성하였음

〈표 III-10〉 서울시 남북체육교류 현황

구 분	사업명	주요 특징
1990	남북통일축구대회	- 분단 이후 첫 낮은 단계의 축구교류전
2002	남북통일축구대회	- 2002년 6월 서해교전 이후 긴장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전환하고자 남북체육교류협력 진행
2005	남북통일축구대회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 진행
2018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체육교류협력 지속을 위해 진행

출처 : 「연합뉴스」 1990~2018년 검색 참조.

-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도와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체계적으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추진하였음
- 인천시는 2005년 제16회 인천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 북한 참여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의 남북 분산개최를 위한 방안으로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기증하였음
 - 2009년에는 남북 축구대표팀(프로,유소년) 친선경기와 남북 유소년 축구팀 합동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
 - 2014년 인천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협력을 실시하였음

〈표 III-11〉 인천시 남북체육교류 현황

구 분	사업명	주요 특징
2005	제16회 인천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 인천시 첫 실시
2007	평양시 체육단축구장 인조잔디 지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남북 분산개최로 진행하기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
2009	남북 유소년 축구팀친선경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
2011	인천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1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
2012	인천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2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
2013	인천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3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
2014	인천평화컵 국제여자유소년 축구대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
2018	ITTF 탁구 월드컵어 그랜드파이널	- 탁구 혼합복식 남북단일팀 출전 행정지원

출처 : 「연합뉴스」 2005~2018년 검색 참조.

- 강원도는 1998년 9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팀’ 신설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체제를 정비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래 〈표 III-12〉와 같이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진행하였음

〈표 III-12〉 강원도 남북체육교류 현황

구 분	사업명	주요 특징
2006.03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춘천)	- 분단 이후 첫 남북 동계스포츠 교류 - 당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중이었으며, 평화올림픽 홍보를 위해 북한팀과 친선교류 - 2003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가진 ‘동계체육교류’에 대한 기본합의가 3년만에 성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치	- 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2018.02.09.~25)에 북한과 남한은 남북단일팀 구성 및 동계올림픽 참여(강원도)

출처 : 「연합뉴스」 2005~2018년 검색 참조.

- 경기도는 2001년 11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3월 남북교류협력과 조직을 신설 및 2018년 10월 남북교류협력국으로 조직을 확대하였음

〈표 III-13〉 경기도 남북체육교류 현황

구 분	사업명	주요 특징
2014~2018	국제유소년축구대회	6개국 8개팀 참가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남한(경기도),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참여

출처 : 「연합뉴스」 2014~2019년 검색 참조.

- 충청북도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통해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서천국제오픈 태권도대회를 통해 북측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하는 등 태권도를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남북간 태권도 교류 정례화를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국도 1호선 평화통일 구간 마라톤대회 등을 구상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2007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관련 도민응원단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연구를 준비하고 있음
- 제주도는 국제체조대회, 유스 축구대회, 한민족 평화통일 씨름대회, 북한 축구선수단 동계 전지훈련 유치 등을 추진하였음

제4장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조건

1. 역사

- 부산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0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남한의 대표적인 체육경기대회인 제81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 이 경기 성화 채화를 위해 부산시는 북한의 금강산에서 성화 채화를 제의하였으며, 북한에서 승인하여 2000년 10월 1일 금강산에서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를 실시하였음
- 그리고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된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316명 참여(선수단은 평양에서 고려항공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와 응원단 280명 등이 참여하였음
 - 응원단은 만경봉호를 타고 원산을 출발하여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선박에서 숙식하며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였음
- 부산시는 2003년 부산 교류협력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신발제조업, 섬유업, 수리조선업, 수산업, 항만건설 및 운영 등 5개 부문에서의 경제교류협력의 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음
- 그러나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북한 피해주민에게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담요, 라면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북한 홍수피해

당시에도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음

- 그리고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민간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와 협력하여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내 항생제 공장 건립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 자재와 생산기계, 품질관리기계 설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였음

<표 IV-1> 부산시 남북사회문화 체육교류 현황

구 분	사업명	주요 특징
2000	제81회 전국체전	- 금강산 성화 채화
2002	부산아시안게임	- 2002년 9월 29일~10월 14일 - 선수단 316명, 응원단 및 관계자 약 357명 장기간 최대 인원 남한 체류 북한 우승 시 북한국기 게양 및 국가 연주 허용

<그림 IV-1 >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체육교류 현황



출처 : 「KBS」, 검색일 : 2020.03.05. <http://mn.kbs.co.kr/news/view.do?ncd=390430>

- 한편, 부산시는 남북협력 「PEACE 2019」를 마련해 남북 평화협력의 원년으로 삼고자 했음
 - 이 추진계획의 기본방침은 부산시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북측이 수용가능한 사업위주로 세부 제안사항을 구체화하고, 대북사업을 제안하는 것임
 - 즉, 북측의 실질적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학, 기술, 경제발전 등 북측의 관심분야 위주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끝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접촉으로 신뢰 구축 및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공식적인 대북 접촉창구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 부산시는 그간의 추진성과로 1. 4.27 남북정상회담 계기 부산시 입장문 및 남북교류 재개 발표, 2. 부산시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 발표 및 TF 구성(5개 분야 16개 과제 35개 사업, 소관부서 참여 TF 회의 개최), 3. 시장 평양 방문, 남북협력 5개 사업 제안서 전달(10.4 남북선언 공동행사 참석(2018.10.4.~10.6), 북민협 등 면담), 4.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2018.10.18., 시장, 교육감 등 위원 23명 참석, 11년 만에 회의 개최), 5. 경제부시장 평양 방문 부산시 제안사항 후속협약(조선 아태평화위, 북민협 등 면담), 6.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규모 확대, 실무위 운영, 사업범위 확대 등)을 꼽고 있음
- 남북협력 「PEACE 2019」는 세부 추진계획으로 ‘바다, 미래, 문화, 세계’를 제시하였다. 문화 분야의 경우 ‘문화를 활용한 남북 간 유대 및 신뢰 구축’을 테마로 2019년도 주요 문화·체육행사 북한 초청, 2019 유라시아 청년 대장정 북측 경유를 추진하고자 했음
 - 무엇보다 문화 분야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활성화된 남북교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문화와 체육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구체적으로 북한 초청 문화·체육행사로는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7. 2~7. 7, 사직실내체육관), 부산국제영화제(10. 3~10. 12, 영화의전당), 동

아시안컵 축구대회(12. 9~12. 18, 한국) 등이 있음

- 2019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에서는 육로 또는 해상을 통해 북측의 개성, 평양, 신의주나 나진을 경유해 중국·러시아나 독일의 베를린을 방문하고자 했음

2. 조건

1) 김정은 시대 문화 분야²⁰⁾

- 김정은 시대에 문화 분야는 적어도 양적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봐야 할 것임
- 북한이 지향하는 문화 분야의 방향성과 현실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남북 간에 접점을 찾는 동시에 부산시만의 강점을 살리면서 교류할 수 있는 장르를 검토해야 함
- 본 연구에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장르와 흐름은 다음과 같음
 - 문학의 경우 최근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중시사상’ 주제 작품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 영화의 경우에는 제작 편수가 줄어 2013년에는 한 해에 1편씩 창작되다가 2017년, 2018년에는 작품이 발표되지 않았음
 - 텔레비전 드라마는 2018년에 <임진년의 심마니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일본의 탐욕에 맞서 개성인삼을 지키는 조선 심마니들의 이야기이면서 과거 드라마보다 이야기 전개가 빠르며, 전투 등의 경우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음

20)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0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283-295.

<그림 IV-2> 북한 드라마 <임진년의 심마니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8061

- 연극이나 가극의 경우 과거 작품의 재창작이 이어지면서도 경제건설 주제의 작품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 음악의 경우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 시대의 대표 악단이면서 북한에서 문화 분야의 대표 아이টে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강릉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이 참여하여 공연을 하였음(삼지연관현악단은 공훈국가합창단, 청봉악단, 모란봉악단, 만수대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릉과 서울에서 클래식, 세계민요, 남한가요, 북한가요 등을 공연한 바 있음)

<그림 IV-3> 삼지연관현악단 서울공연



출처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123760>

- 교예의 경우 ‘평양교예단’은 ‘국립교예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예 <춘향전>을 2012년에 공연했는데, 공중에서 줄타기, 물 위에서 줄타기 등 현란한 배우들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음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2013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중단 이후 5년 만에 <빛나는 조국>이 공연되었는데 드론과 첨단 기술의 활용, 일종의 미디어 아트 기법을 특징으로 할 수 있음(이 작품은 정치적 요소를 생략하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축하공연에서도 공연되었고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로 이름을 바꾸어 공연되었음)

<그림 IV-4>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출처 : <http://www.hani.co.kr/arti/PRINT/862940.html>

- 미술은 과거에는 조선화를 토대로 한 ‘우리식 유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민족적 형식’에서 ‘인민의 감성’과 ‘세계화’로 형식이 변해가고 있음
- 문화재의 경우 북한은 우리와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민요 ‘아리랑’, 민족체육 ‘씨름’, 민속무용 ‘연백농악무’, ‘김치’, ‘막걸리’ 등을 국가비물질 민족유산으로 등록하였고, 2015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교체하였음

2) 김정은 시대 체육 분야²¹⁾

- 김정은 시대에 체육 분야는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체육을 통해 기존의 국방력과 노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육의 과학화와 엘리트 선수양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을 이루고자 함
- 북한은 2012년 런던 올림픽 11개 종목에 5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종합 20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 동아시아컵,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브라질 월드컵 등 세계 주요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대내외적으로 체육 분야의 성과를 홍보하였음
-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은 2012년 “체육열풍 강조”, 2013년 “체육강국건설 구상”, 2014년 “체육강국 건설” 프로파간다 실시

<그림 IV-5 > 김정은 시대 체육열풍 및 체육강국 건설 목표 제시



출처 : 「연합뉴스」, 검색일 : 2020.03.05.

<https://www.yna.co.kr/view/MYH20140509017500038?section=search>

- 대내외 홍보와 함께 체육시설물에도 강조를 두면서 평양 청춘거리에 ‘태권도 성지’, ‘마식령스키장’, ‘릉라인민체육공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평양체육관’, ‘양각도체육촌’ 등을 건설하였음

21)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0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289-291.

- 북한은 평양 능라인민유원지에서 수영복을 입고 비치발리볼을 즐기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 통일거리 운동센터 등의 헬스장에서 근육운동을 하는 주민의 모습을 체육정책 발전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음
- 김정은 시대의 체육 분야는 대외관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평양 주재 외교관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축구학교를 열어 외국인도 유학이 가능하게 하였음

<그림 IV-6 > 김정은 시대 스포츠외교



출처 : 「RFA」, 검색일 : 2020. 1. 30.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e40c528-c77cac00c758-ac70c9d3acfc-c9c4c2e4/co-jj-09102013115220.html, 「노동신문」, 2012.11.02.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북한은 남북단일팀을 구성 및 참여 하였으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카누에서 금메달을, 여자농구에서 은메달을, 사격, 역기 종목 등에서 금메달을 따는 성과를 올렸음
- 2018년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2020년 도쿄올림픽 5개종목 단일팀 구성합의 및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에 합의
- 2019년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 단일팀구성 및 참가 하였으나,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는 중단되었음

3. 제도

1)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 부산시는 2007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하였음
 - 부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조례제정은 늦었지만²²⁾ 최근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신속하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를 이행하고 있음
 - 2019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형식적이 아닌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²³⁾
- 이 같은 주요 조례 개정은 북한의 주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 특징 비교는 아래 <표 IV-2>와 같음

<표 IV-2> 부산시 및 주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조례 관련 비교

구분	사업의 범위(기금의 용도)	위원회 구성
1. 부산광역시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항만·수산·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사업	50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	30명 이내
3. 강원도	남북한의 주민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 ²⁴⁾	20명 이내
4. 경기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30명 이내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2) 주요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제정 : 강원도(98.09.09), 경기도(01.11.09), 서울(04.07.20) 등.

23)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심의할 것을 추가하였다. 둘째,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셋째,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주요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보다 꼼꼼한 검토와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 그리고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24) 강원도는 1998년 9월 9일 제정한「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와 1998년 12월 31일 제정한「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는 2018년 5월 4일 폐지하고 2018년 9월 28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신설 및 시행하였다.

2)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 2018년 12월 31일 기준²⁵⁾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대북 관련포함) 담당부서 조직은 일자리경제실-국제통상과 4명이었으나, 2020년 2월 16일 기준 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에 10명으로 조정되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대북관련포함) 담당부서 조직과 구성 비율은 부산시보다는 보다 세부적으로 업무 구분 및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비교는 아래 <표 IV-3>와 같음

<표 IV-3> 부산시 및 주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대북관련포함)관련 인력 비교

구분	담당 부서	직원 구성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10명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남북협력추진단-남북협력담당, 개발협력담당	24명 (TF 5명 별도)
3. 강원도	강원도-평화지역발전본부 및 산림관리과 삼림병해충방제,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19명
4. 경기도	경기도-평화기반조성, 평화협력과	22명

자료 : 각 시청, 도청 내 조직도 참조.

-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과 맞닿고 있는 지역이라서 남북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비무장지대(DMZ) 공동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남북교류협력관련 부서에 인적 인프라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음
- 부산시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보다 세분화된 인적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5) 나용우, 홍석훈, 박은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18-04」, (서울:통일연구원, 2019), p. 27.

3)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재정 안정성

- 부산시의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함
 - 부산시는 2008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였으며, 11년만에 2019년 9월 북한에 콩기름 200톤(약 3억원)을 지원
 - 부산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7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음
 - 부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 위탁받은 부산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가 북한 농업단체에 콩기름 200톤을 지원하였음
 - 지원과정에서 직접적인 전달이 아닌 중국을 경유하여 지원하였음
 - 부산시는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7,057,141,000원이며, 2018년 1,330,000원 지출, 2019년 1,512,000,000원을 지출하였음
 -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을 늘려야 하며, 늘어난 남북협력기금만큼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성액 대비 지출현황 비교는 아래 <표 IV-4>와 같음

<표 IV-4> 부산시 및 주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관련 재정 비교

(단위:천원)

구분	2019년말 기준 총 조성액	2018			2019		
		조성액	집행액	조성액 대비 집행 비중	조성액	집행액	조성액 대비 집행 비중
1. 부산광역시	7,057,141	113,870	1,330	1%	2,147,188	1,512,000	70%
2. 서울특별시	33,158,000	442,000	3,783,000	855%	25,401,000	6,444,000	25%
3. 강원도	13,514,928	10,573,288	1,708,767	16%	5,027,016	5,000,000	99%
4. 경기도	37,967,150	22,327,088	2,055,541	9%	10,680,998	5,630,462	52%

자료 : 각 시청, 도청 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현황 참조.

제5장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1.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를 위한 준비 현황

-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부산형 남북상생 및 평화경제 준비
 - 4.27선언 1주년기념 부산평화선언대회, DMZ 평화손잡기 시민참가단 지원
 -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기념 통일부장관 초청특강 개최
- 2019년도 주요 국제행사 북한참여 및 교류계기 마련 추진 실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총회,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등
- ‘One Korea 피스로드 2019 부산 통일대장정’ 실시
 -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결의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기원하기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자전거 타고 부산시청에서 출발하여 임진각을 향한 통일대장정 실시
- 남북협력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으로 시책 시민참여 증대
 - 10.4 남북공동선언 12주년기념 시민참여행사 개최(10월)
 - 부산의 남북교류 전시회, 시민참여 평화문화제 등

-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 등 대상 통일교육 의무화
- 통일교육센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체계적 평화통일교육 추진

2.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전략

- 김정은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 도들에 자 체실정에 맞는 경제 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 것”을 언급하였으며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4년 6월 11일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 산국제관광지대’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후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으로 강조하였으며, 2017년 신년사에서는 ‘원산지구건설’을 강조, 2018년 신년사에서는 ‘원산갈마해 양관광지구 건설’을 강조, 2019년 신년사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남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²⁶⁾를 원칙으로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17.5.24),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군사분야 합의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체육문화 부문 남북 교류, 철도 등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진전을 이루고 있음
- 남한은 3대 목표와 4대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려 함
 - 3대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60년 이상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 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 추진)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 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한반도 신(新) 경제공동체 구현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

26)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검색일 : 2020. 05.15. www.korea.kr/main.do.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되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 되었음

- 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
- 4대 전략은 아래와 같음
- 단계적 포괄적 접근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해결)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
-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
-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 부산시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원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지자체 교류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부산시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 방향은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와 남북협력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으로 시책 시민참여 증대 임
- 부산시가 남북 간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는 단계별 전략, 문화체육 산업 전략, 국내외 연계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단계별 전략

- 남북관계를 개선함에 있어 단계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므로 상황과 때에 맞는 초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함
- 남북 교류는 방법상으로 1. 중앙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모델, 2. 우수한 타 지방 정부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모델, 3. 부산시만의 강점을 활용한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음
- 이 방법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 대북제재가 지속(현재->미래) 되었을 때의 전략과 대북제재가 해제(초기, 중·장기 고려) 되었을 때의 전략이 구분되어야 함

2) 문화·체육 전략

- 과거 중앙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할 때 민족적 관점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 주력했음
 -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에도 이 방식은 유효함
 - 다만 김정은 집권기에 변화한 북한을 보면 과거의 인도적 지원이나 민족에 기초한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목도하고 있음
 - 이 점은 북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남측을 배제하는 통미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 김정은 집권기가 실리의 관점, 즉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측면도 있어서 남측의 단기적 지원이나 행사에 미온적인 면도 있음
 - 북한의 '국가성' 또는 '주체성'의 관점으로 보면 남측을 대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리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여기는 면도 있음
- 이렇게 보았을 때 앞으로의 문화체육교류는 민족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즉, 문화체육의 관점에서 교류 활성화를 찾아야 부산시민에게도 이익이고, 남북관계에도 이익이 됨

3) 국내외 연계 전략

- 대부분의 지자체가 북측과의 사업을 희망하고 있음
- 매해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 분야 교류를 증진시키는 전략 역시 매우 중요함
- 기존 부산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을 기초로 교류 활성화를 고민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국외단체 등과 연계해 사업을 장기성과 효율성 모두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남북한 전문 인력, 인적 자원의 자연적 상실(김성수 2018, 27)이며, 남북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임
 - 과거 남북 교류협력을 경험한 인원의 노쇠화, 관련 업무 변경과 단절, 세대교체 등이 줄곧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재구축이 절실함
- 이렇게 본다면 부산시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지속가능한 인력의 확보, 인적 네트워크 재구축을 들 수 있음

3. 문화 분야 활성화 방안

- 김정일 집권기부터 강조되었던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로 구체화되었음
- 2013년에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라고 밝힘(전영선 2018, 3)
- 김정은은 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이며, 주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화를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밝혔음
-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범위는 ‘문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꽤 넓은 편인데 문학예술을 포함해 교육, 보건, 사회주의 문화, 생활양식, 도덕기강, 현대적 문화기지 등임(명광순 2017, 91-197)
-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서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가시적인 성과는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 각종 유원지와 문화시설 등임
- 각 지방에도 물놀이장이 건설되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 범위에서 문화시설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유원지 건설과 함께 명승지 개발 사업에도 힘을 쏟았음
- 김정은 집권기 한동안 문학예술정책의 방향과 모범은 모란봉악단이었음
- 통상 북한의 문학예술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는 시대의 명작 창작과 소위 ‘부르쥬아 반동문화’의 척결로 요약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522)
- 한편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삼지연관현악단(예술단 114명, 기술실무진 23명 등 총 137명)이 북한 예술단으로서는 16년 만에 남쪽을 찾음
- 삼지연관현악단은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을 중심으로 청봉악단, 모란봉

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을 더해 편성한 팝스오케스트라임

- 2018년 2월 8일과 2018년 2월 11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과 서울극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이 이어졌음
- 2018년 4월 1일과 4월 3일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측 단독 공연 ‘봄이 온다’와 남북 합동 공연 ‘우리는 하나’가 진행되었음(이는 2005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조용필 콘서트가 열린후 13년만이었음)
-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한의 대내, 대외, 남북 관련 문화 동향은 아래 <표 V-1>, <표 V-2>와 같음

<표 V-1> 2018년 북한 문화 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음악회 - 평양얼음조각축전-2018 - 제22차 김정일화축전 - 제7차 전국소묘축전 - 제20차 김일성화축전 -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 제23차 태양절료리축전 - 국가산업미술전시회 -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2018 - 제21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공연 - 제4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 - 전국단고기료리경연 - 전국민족음식전시회 -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 - 전국김치전시회
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금코끼리 국제교예축전 참가 - 제11차 이쥬스크국제교예축전 참가 - 제7차 쇼뽕국제뽕스까그랜드피아노음악경연 및 축전 참가 -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 《이돌-2018》세계교예예술축전 참가(쇠줄타기 최고상 수상)
남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서울 공연(2월 8일, 11일) - 남한 예술단의 평양공연(4월 1일, 3일)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참조 : 2018년 노동신문 검토 및 저자 재구성.

<표 V-2> 2019년 북한 문화 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설맞이공연 - 평양얼음조각축전-2019 - 제23차 김정일화축전 - 제21차 김일성화축전 - 제6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 제24차 태양절료리축전 - 전국서예축전 -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 전국조각, 공예축전 - 전국화장품전시회 -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 -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 - 국가산업미술전시회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공연 - 제4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 - 감자가루음식전시회 - 전국김치전시회 - 중앙산업미술전시회
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이집트국제교예축전 참가(금상 수상) - 모스크바국제축전 참가
남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참조 : 2019년 로동신문 검토 및 저자 재구성.

1) 단기 방안

-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부산시민이 갖고 있는 강점과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함
- 부산시의 강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근대향으로서는 가장 먼저 개항(1876년 2월 27일)하였음
 - 원산과의 교류협력에서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과 원산의 공통 분모인 항만, 물류, 관광, 산업도시와의 연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가 원산, 금강산을 환동해 해양관광 벨트에 포함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다음, 피란수도 1023일, 대한해협해전(1950.6.26.), 부산 교두보 전투(1950.8.4.~9.18), 유엔평화기념관을 들 수 있음
 -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전쟁을 평화로 전환하는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음
- 다음, 부산국제영화제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꼽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중요성이 간과되는 측면도 있지만 올해는 한국전쟁(6.25전쟁) 70년임
 - 부산은 '피란수도'로 전쟁을 평화로 전환하는데 상징적인 장소임
 - 그런데 한국전쟁을 평화로 전환하는 사업은 관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함
 - 시대적 정신에는 한국전쟁 환기를 통해 불행했던 과거를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이것이 북한에 대한 혐오,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함
- 오히려 전쟁과 평화가 반드시 함께 가지는 않기 때문에 남북 문화교류 측면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일견 수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항일운동과 관련된 인물(한형석(한유한)) 등을 남북이 공유하고, 체계화하면서 평화의 기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한형석은 항일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과 항일 가곡 등 100여 편의 작품을 남김
- 과거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 작품이 출품(북한영화특별전 개최, 출품 7편 / 상영 5편)된 적이 있음
 - 영화제는 기존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민간 영역의 부산평화영화제²⁷⁾와 연계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한편, 타 지자체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함

27) 부산어린이어깨동무가 주최하는 부산평화영화제는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마련을 마련하였음
 - 과거 고구려 유물전시회(2005),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2006),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를 지원(2006)하였음
 -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 조사를 연구 추진하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018~2022)가 활동하고 있음
- 경기도는 파주-해주 간 울곡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부산시는 북한과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자 정책적으로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정창현 2019, 390)
 - 공동학술대회, 문화유적의 보존과 공동 발굴, 상호 교환전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상호협정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의 환수나 해외유출 방지에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분야별로 부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문학 및 언어 분야는 민족 공통어의 문화 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한 공유 자산임
 - 문화교류 사업이 활발해지거나 남북 사이의 인적 왕래, 방송 개방 등이 본격화되면 언어 이질화 등의 언어문화가 공론화될 것임
 - 이를 극복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문인협회’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음
 - 1990년대 초부터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한 국어 및 언어학자들의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본격적인 교류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남북한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은 장기 사업이며 문화교류 협력 사업 가운데에 사업 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예산 부분

에서도 비중이 높음

- 초기에는 문학작품을 통한 문화의식의 교류로 진행해 나가면서 점차 조직의 활성화, 공동 사업 아이템의 개발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남북 간의 사업 추진이 당장 어렵다면 부산시 차원의 평화와 통일 관련 문학관 등을 추가하여 남북교류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1950년 전쟁 또는 그 이후 재북, 월북 문인들의 활동 또는 작품 배경이 되는 주요 공간을 보존 관리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음
- 공연예술 분야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가운데에 건수는 적지만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분야임
- 공연예술 분야는 대규모 인적 교류를 수반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북측의 인원 동원도 쉽지 않음
 - 공연작품의 취지, 공연작품의 준비과정, 공연참여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협력이 필수적임
 -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윤이상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사업 영역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해 보임
- 문화산업 분야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출판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되어야 함
-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의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 북한과 접촉이 가능한 해외영화제에 인력을 활용해 대면을 늘려나가는 함
 - 주목도가 높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원산에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건립하여 남북 공동 작업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애니메이션 분야는 북한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산에 애니메이션 제작센터를 설치해 교육, 제작 등의 공간으로의 활용 모색이 필요함
 - 적어도 남북 어린이가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 제작은 단기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활용가치가 높다고 봐야 함

○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V-3> 남북교류협력 문화 아카데미 운영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 목적	- 상시 개설 및 운영(코로나바이러스-19로 연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심 있는 시민 대상 강좌 개설 및 운영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현황 소개 및 공유 - 부산시 교류협력사업 유관기관 방문 및 현장 견학 - 문화를 활용한 부산시 도시브랜드 구축
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조직위원회 4개 본부 11개 부서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해당사항 없음
예상안	차수별 30명 4~8개 강좌 운영
함의	- 문화교육을 통해 부산시에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 부산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 경쟁력 제고 - 향후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토대 마련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V-4> 남북교류협력 문화 분야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 목적	- 상시 개설 및 운영(코로나바이러스-19로 연기) - 남북교류협력 분야 공공, 민간 단체 사업 역량 강화 - 남북교류협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기능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현황 소개 및 공유 - 부산시 교류협력사업 유관기관 방문 및 현장 견학 - 문화를 활용한 부산시 도시브랜드 구축
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조직위원회 4개 본부 11개 부서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 재	- 해당사항 없음
예상안	차수별 10~20명 8~10개 강좌 운영
함의	- 부산시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 실무자,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부산시만의 내구력 강화 - 부산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 경쟁력 제고 - 향후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토대 마련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V-5>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 분야 공모사업 실시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 목적	- 2020년 하반기(상시 개최) - 부산시민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남북관계 관심 증대 - 남북교류협력 정책 마련을 위한 신규 아이디어 공모 - 문화 분야를 활용한 부산시 도시브랜드 구축
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조직위원회 4개 본부 11개 부서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 재	- 사업 시행 시 논의할 사항임
예산안	최소 비용으로 평화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임
합의	- 부산시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 문화 분야의 아이디어를 통해 부산시만의 차별화 구축 - 부산시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남북교류협력 경쟁력 제고 - 향후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토대 마련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중·장기 방안

- 문화 분야의 기본 방향은 지방 정부(부산시)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안정적·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견인하면서 사안에 따라 선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임
- 부산시의 기존 사업 모색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신남방-신북방 사업에서 부산-북한 간 사업 모색을 추진 중임 (중장기)
 - 부산시의 기존 사업 구상에는 물류는 나선, 산업은 함흥, 관광과 수산-원산과의 사업을 모색하고자 함
- 항만, 물류, 관광, 수산, 금융 사업 역시 중장기로 추진하고자 함 (중장기)
 - 중장기적 사업에서 문화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 부산시는 도시협력 시민제안 공모를 추진하여 시민 주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단기)
- 부산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제가 열리고 있음
- 영화제 중심의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문화산업 전략 측면에서 사고하면 이는 단기적 방안에 불과함
- 북한에도 영화는 매우 중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북한에 민족, 사극 등과 관련한 영화세트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산-아세안-북한을 활용한 사업 구상
 - 2020 부산국제영화제 시 남북평화기획전 마련
 - 부산 평화.통일 박람회(2020.10)에 북측 인사 초청
- 한편, 부산-원산-러시아로 이어지는 환동해 해양관광벨트에 문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외국인을 포함한 패키지 => 국제 영화제 특별전 => 윤이상 공연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실시하는 것을 제시함
- 중장기적으로 공연예술 분야는 남북 공동 제작으로 해외공연을 추진하고, 예술인 사이의 워크숍이나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의 경우 남북한, 러시아와의 공동 작업이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음
 - 일반 주민 대상의 공연 행사 등도 추진해야 하지만 예술인 간의 상호 영상물 교환 및 인력 파견, 북측 공연시설 조사, 운영, 기술 장비 활용에 관한 부산시의 노하우 전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남북, 러시아 예술인 및 스텝의 공동 연수 프로그램, 부산시의 예술대학 교수진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음
 - 원산에 공연장, 영상실, 연습실 등을 건립해 남북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 분야 중 영화는 대규모 장비와 인적 접촉이 필요한 분야, 특히 공동제작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함
- 문화산업 분야 중 방송 분야는 방송 개방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해내기는 어려움이 따름
 - 부산시 차원에서는 평양이나 원산에 ‘부산지국’을 개설해 지방 뉴스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보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전에 방송인 교류와 개별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 상호 주문 제작 등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화 분야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V-6> 부산-원산 복합문화공간 건립(각 도시에 건립)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
추진 목적	- 부산, 원산 간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 - 부산, 원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현황 소개 및 추진 계획 공유 - 부산시민, 원산시민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 마련 - 문화 분야를 활용한 부산시 도시브랜드 구축
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조직위원회 4개 본부 11개 부서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 정부의 재정 보조 검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문화체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전시, 공연, 도서관 기능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함의	- 남북 문화 관련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상시 교류협력 원활 - 부산시 자체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 경쟁력 제고 - 남북한 문화산업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V-7> 원산 영화제작촬영소 건립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
추진 목적	- 부산, 원산 간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 마련 - 부산, 원산시 간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장기적 계획 공유 - 부산시와 원산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사업 마련 - 문화 분야를 활용한 부산시 도시브랜드 구축
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조직위원회 4개 본부 11개 부서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 정부의 재정 보조 검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문화체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촬영시설, 영상관, 영상지원관, 오픈세트 시설을 건립해 부산시만의 노하우 전수
함의	- 남북 합작 영화, 북한 영화 촬영, 제작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상시 교류협력 원활 - 부산시 자체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 경쟁력 제고 - 남북한 문화산업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4. 체육 분야 활성화 방안

- 2012년부터 현재(2020년 3월)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민편의시설 개선과 주요 체육시설 건설, 체육대학 설립 등을 진행
- 대내적으로 체제안정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주요 사회문화시설(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팅장, 룡라인민유원지, 만경대 유희장등)과 체육 시설을 개선 및 보수, 신축하였음
- 대외적으로 국위선양과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꾸준히 참여 하고 있으며, 올림픽 및 주요 국제체육경기대회에서 성취한 우수한 성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영도에 의한 결과로 전달하고 있음
-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김정은이 체제안정과 민심을 얻기 위해 사회문화 체육시설 개선에 집중한 시기이며, 이후 지속된 유희시설 개선과 체육시설 개선은 한동안 김정은의 집중관심 대상은 아니었음
-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김정은은 다시 체육을 통해 외교 관계 수립 및 경제발전 그리고 민심연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2013년 마식령 스키장 건설과 비슷하게 2019년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건설사업 역시 1년만에 건설되었으며, 김정은이 짧은 기간 수차례 방문하여 관료주의 점검과 현지지도한 사례임
- 김정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속에서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탈정치영역인 문화체육분야 개선 및 건설을 통해 문화, 관광, 체육교류사업(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한의 대내, 대외, 남북관련 체육 동향은 아래 <표 V-1>, <표 V-2>와 같음

<표 V-8> 2018년 북한 체육 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산 스키장에서 전국청소년 스키 경기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외 다수의 체육대회 개최 - 제6회 보건부문 체육대회 - 마라톤 애호가 경기대회 - 승마 애호가 경기 - 공화국선수권대회 씨름경기 - 장애인 애호가 탁구경기 - 국제무도경기위원회 행사 개최 준비 -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 축구, 빙상하키, 피겨스케이팅, 스키 등 50여 종목 -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축구 연맹컵 경기대회 - 이란과 문화예술교육대중보도체육 분야 양해문서 작성 -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세 미만 국제축구대회) -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역도 금메달(오강철, 최전위, 림은심 선수) 사격 금메달(박명원 선수) - 마라톤 애호가 경기대회, - 북-중 체육교류 협정 - 일본체육대학대표단과 교류, - 북-일 남녀체육대학팀 친선축구경기 - 북-중 여자농구 혼합경기, -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참여 - 국제역기연맹 경기 참여, - 평양 국제건강체육과학기술 전시회 개막 - 중국개최 국제유술연맹 세계유술강자 대회 참여
남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및 문화예술단 교류, 태권도 시범단 교류 - 남북단일팀 구성 및 참여(여자아이스하키, 용선단체전,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혼합복식 우승(남북단일팀, 여자 카누500m 금메달, 200m 동메달) -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스키선수단 훈련 - 남북 고위층 인적 교류 - 남북통일농구 혼합경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 탁구, 수영 남북단일팀 첫 합동훈련 - 남북체육분과회담

참조 : 2018년 로동신문 검토 및 저자 재구성.

<표 V-9> 2019년 북한 체육 관련 동향(대내, 대외, 남북)

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체조무용,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외 다수의 체육대회 개최 - 제7회 보건부문 체육대회 -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마식령 스키장과 동일하게 집중적으로 현 지지도) - 전국 어린이 바둑경기, 전국바둑애호가 경기 대회 - 전국태권도강자 경기대회, - 청춘거리 체육인숙소 준공 - 동평양 지구에 체육기지 건설 시작 - 남시 애호가 경기, - 마라톤 경기대회 - 체육과학기술 성과전시회, - 강계시 류동지구에 체육인숙소 준공 - 장애인 사격 및 양궁 경기 진행
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 -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 진행 - 대만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 여자 1500m 금메달 - 국제카누연맹 여자까노에컵경기대회 참석 - 제30회 하계유니버시아드 참여, - 콩고 체육장관과 회담 - 국제탁구연맹 챌린지 플러스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 진행 - 국제무도경기대회 이탈리아 개최 및 참여 - 북한태권도협회 20주년 행사 - 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 박영미 선수 금메달 - FIFA 남자 월드컵 지역예선(남북 경기), - 아시아컵 다이빙경기대회 금1, 은2, 동2, - 아시아 청소년 및 청년 역기선수권대회 개최 - 북중 건강 및 체육부문 과학기술전시회, - 세계군인체육대회 참여 -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 여자 2인조 경기 우승 -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여자 축구 우승 - 유술, 역도 금메달
남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핸드볼 단일팀 구성 및 참여

참조 : 2019년 로동신문 검토 및 저자 재구성.

1) 단기 방안

-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국내 최초 및 부산 개최)
 -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의 원칙은 세계탁구선수들의 경기교류이며, 대회 엠블럼을 통해 부산을 상징하는 광안대교홍보, 인류평화와 남북화해의 의지를 반영, 남북평화 및 단일팀의 성공을 염원을 내포하고 있음
 - 방향은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출전 및 북한 선수의 남한 방문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전 세계 모든 스포츠 경기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전략으로 2020년 제5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단체전 경기이며, 최초 계획은 남자 72개, 여자 72개 팀 참가 및 130여개 참가국과 선수단, 임원 등 2,500여명 부산 방문 예정 그리고 북한의 참여 및 남북 단일팀 구성 계획을 통해 남북 소통 창구 마련
 - 토마스 바이케르트 국제탁구연맹 회장은 2018년 스웨덴 세계선수권대회 때 남북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음
 - 코로나바이러스-19 진정과 스포츠경기대회 재개 시 토마스 바이케르트 국제탁구연맹 회장과 함께 다시 남북단일팀 제안 필요
 - 2019년 남자핸드볼 남북단일팀을 마지막으로 남북 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필요
 - 방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과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로 스포츠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방법으로 국제탁구연맹을 활용한 북한의 스포츠외교를 활용 필요
 -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단체전 경기이며,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도쿄올림픽 탁구 여자단체전 출전권(김송이, 김남해, 차효심, 변송경)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분위기에서 단순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부산 개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석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체제 불안정 시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2014인천아시안게임」당시 권력 2인 폐막식 참석 사례”와 “「2018평창동계올림픽」남북단일팀 구성 사례” 같이 스포츠를 이용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려 할 것이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점차적으로 안정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산 개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표 V-10> 2020 세계탁구선수권대회 - 부산개최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 목적	- 2020년 3월 개최(코로나바이러스-19로 연기) - 도쿄올림픽 전 최우수 선수 참가 확보 - 올림픽관련 각국 선수단 전지훈련장으로 부산 활용 목적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도시브랜드 구축
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조직위원회 4개 본부 11개 부서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문화체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130개국 2,500여명 선수, 임원 북한 단체팀 참여 유도 및 남북 단체 단일팀 구성
합의	-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교두보 - 2019년 남자 핸드볼에 이은 탁구 단일팀 스포츠 교류 - 2018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여자팀 단일팀 동메달 이후 부산에서 재결합 - 부산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 소통 재개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 부산개최(남북 그리고 중국과 일본)
 -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 부산개최의 원칙은 역도선수들의 경기교류이며, 북한의 역도선수들을 부산으로 초대하여 남북체육선수들간 인적교류 및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2020년, 2021년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를 통해 동북아 스포츠외교를 통한 동북아 경색국면 회복 및 북한 선수의 남한 방문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김정은 시대 들어와 김정은은 ‘세계적 추세’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국제표준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역도 기자재를 지원 및 체육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역도엘리트 선수 양성에 집중하였음
 - 그 결과 북한은 경량급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엄윤철(남자, 56kg), 김은국(남자, 62kg), 오강철(남자, 69kg), 최전위(77kg), 최효심(여자, 59kg), 림은심(여자, 69kg) 등은 국제경기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을 하였음
 - 2019년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가 평양 청춘가역도경기장에 개최되었으며, 남한 선수들도 참여 하여 남북간 스포츠교류가 진행되었음
 -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북한 개최 당시 남한이 우승 시 태극기 게양 및 애국가를 연주 해 주었음
 - 2013년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서 남한 선수가 우승 하자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내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가 연주되었음
 -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오강철, 최전위, 림은심 역도 선수는 금메달을 받았으며, 국제무대에 많이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 전략으로 남한의 장미란 역도선수와 북한의 엄윤철 역도선수를 홍보대사로 영입하고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를 부산에서 개최 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 방안으로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 부산 개최를 통해 동북아시아 스포츠외교 실시
 -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각국 선수단 전지훈련장으로 부산 활용

<표 V-11>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 부산 개최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 목적	- 기존 한국, 중국, 일본 간 스포츠외교 및 친선도모에서 북한을 포함한 4개국 친선역도경기대회 개최 - 동북아 스포츠외교를 통한 경색국면 극복 - 올림픽관련 각국 선수단 전지훈련장으로 부산 활용 목적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도시브랜드 구축
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대한체육회, 대한역도연맹, 조직위원회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문화체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 4개국 150여명 선수, 임원 참여 - 북한 참여 유도 및 남북 스포츠 교류 및 소통
합의	-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교두보 - 도쿄올림픽을 위한 각국 역도선수 실전 경험 - 전통적으로 강한 북한의 역도종목을 통한 남북 스포츠외교 - 상대적 거부감이 덜한 부산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원산 간 용선(드래곤보트) 교류

- 부산-원산 간 용선(드래곤보트) 교류의 원칙은 용선경기 선수들의 경기 교류이며, 북한의 용선 선수들을 부산으로 초대하여 남북체육선수들간 인적교류 및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2020년, 2021년 부산-원산 간 각 지역에서 용선 교류 경기대회를 통해 남북 경색국면 회복 및 북한 선수의 남한 방문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용선(드래곤보트)는 20명 또는 10명의 패들러(Peddler)와 복잡이 1명, 키잡이 1명으로 구성되며,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 한 동작으로 노를 저어 수면 위를 질주하는 수상 스포츠임
-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용선(드래곤보트) 경기 남북단일팀 이후 북한은 국제카누경기에 지속적으로 참여
- 2019년 5월 18일~19일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카누연맹 여자 카누컵경기 대회에서 성인급 1인 200m 1위, 2인 500m, 200m 경기에서 각 2위, 3위 기록
- 2018년 9월 미국 조지아주 개인스빌의 레이니어 호수에서 열린 국제카누연맹(ICF) 용선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 출전 신청을 하고 북한 선수들의 최초 미국비자 발급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비자발급 거부로 인하여 미국 국제카누연맹(ICF) 용선 세계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불참
-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교두보로 활용가능하며, 2018년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경험을 통해 거부감이 적고 남북 선수들의 실력차가 적음
- 용선게임은 개인의 기량보다는 화합이 중요한 경기로 남북협력을 강조하는 스포츠외교가 될 수 있음
- 방안으로 부산의 서낙동강에서 남북 용선 경기, 카누 경기가 가능하며, 이벤트 형식으로 남북 단일팀의 남북 용선경기와 북한 원산의 카누팀과 부산의 카누팀 간의 스포츠 교류 실시

<표 V-12> 부산-원산 간 용선(드래곤보트)교류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 목적	-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단일팀 구성 및 용선 남녀 200m, 500m, 남자 1000m 총 5개 종목 출전 및 남북단일팀 금메달 1개(여자 500m), 동메달 2개(여자 200m, 남자 1,000m) 획득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체육교류 - 평양-부산 간 지역 스포츠 교류를 통한 경색국면 극복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도시브랜드 구축
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대한체육회, 대한카누연맹, 조직위원회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문화체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 북한 선수 약 30명, 관계자 약 20 명 - 북한팀, 남한팀, 남북단일팀 스포츠 교류 실시 - 북한 참여 유도 및 남북 스포츠 교류 및 소통 - 향후 부산과 원산에서 스포츠 교류
합의	-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교두보 - 2018년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경험을 통해 거부감이 적고 남북 실력차가 적음 - 단체전에서는 각 선수별 경쟁을 통한 우승보다는 선수전체의 화합이 중요한 스포츠로 남북협력을 강조하는 스포츠외교가 될 수 있음 - 상대적 거부감이 덜한 부산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국제마라톤 경기대회 개최

- 부산 국제마라톤 경기대회 개최의 원칙은 세계 마라톤 선수들의 기량경쟁 경기대회이며, 북한의 마라톤 선수들을 부산으로 초대하여 남북체육 선수들 간 인적교류 및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부산에서 국제마라톤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북한 선수들의 참여와 북한 관계자들의 남한 방문이며, 남북 경색국면을 마라톤을 통해 회복 및 남북 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북한은 매년 태양절(4월 15일) 즈음 만경대상국제마라톤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들과 스포츠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톤 경기대회 외국인 참여 수는 약 500명이었으나, 2019년 제30차 만경대상국제마라톤 경기대회 외국인 참여 수는 약 1000명 정도로 외국인 참여가 늘었음
- 현재까지 만경대상국제마라톤 경기대회에 남한선수가 참여한 사례는 없음
- 북한의 마라토너가 한국 경기에 참여한 사례는 2002년 아시안게임(함봉실 선수)과 2014년 인천아시안(김혜경, 김혜성)게임 사례가 있음
- 전략으로 북한 선수 약 5명, 관계자 약20명이 부산에 방문하여 남북 스포츠 소통을 실시하며, 매년 정기적인 마라톤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으로 발전
- 방안으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며, 남북경기가 아닌 국제경기대회를 통해 남북교류 및 소통을 이끌어 냄

<표 V-13> 국제마라톤 경기대회 부산개최

원칙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 목적	-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의 함봉실 선수가 여자마라톤에서 금메달 획득 - 북한은 매년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경기대회를 개최 - 국제마라톤 경기대회 부산개최를 통한 남북 스포츠교류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도시브랜드 구축
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 대한체육회, 대한육상연맹, 조직위원회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문화체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 2019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기준 - 18개국 엘리트 47명, 국내 124명 외 일반 15,550명 - 북한 선수 약 5명, 관계자 약 20 명 - 남북 스포츠 소통 실시 - 북한 참여 유도 및 남북 스포츠 교류 - 향후 평양과 부산에서 국제마라톤경기대회 교류
합의	-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교두보 - 북한의 여자마라토너는 전통적으로 강한면모를 보이고 있음 (정성옥, 함봉실 등) - 국제마라톤경기대회를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로써 남북소통을 이끌어냄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중장기 방안

- 부산-원산-평양국제축구학교 청소년 축구 교류
 - 부산-원산-평양 국제축구학교 청소년 축구 교류의 원칙은 청소년 축구 기량 경쟁 및 친목도모 경기대회이며, 북한의 평양국제축구학교 선수들을 부산으로 초대하여 남북청소년 체육선수들 간 인적교류 및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부산 및 원산, 평양에서 청소년 축구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참여와 남북한 관계자들의 남북한 방문이며, 남북 경색국면을 축구를 통해 회복 및 남북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김정은 집권이후 체육강국 건설 목표아래 2013년 5월 평양 능라도 내 1만여㎡ 부지에 축구영재 양성 기관인 평양 국제축구학교 개교
 - 학제는 소학반 2년, 초급중학반 3년, 고급중학반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코치와 감독은 선수경력과 AFC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지도
 - 경기도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아리 스포츠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중학생)를 통해 북한 4.25 체육단과 평양국제축구학교 선수들과 스포츠 교류를 실시해 왔음
 -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상태임
 - 전략으로 주로 인천시과 경기도가 주도하여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실시하였으나, 부산시에서 부산 동래·장평·사하 중학교 대표팀 학생들 또는 각 중학교 축구선수 학생들과 원산 및 평양 국제축구학교 학생들과 축구 경기 교류를 통해 지자체간 낮은단계의 남북 체육교류협력 실시
 - 방안으로 부산-원산-평양 간 지역 청소년 축구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젊은 층의 남북인식 개선 및 평화 조성

<표 V-14> 부산-원산-평양국제축구학교 청소년 축구 교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원산-평양국제축구학교 간 청소년 축구 교류 - 성인경기에 비해 실력차이가 크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 실시 - 부산 동래·장평·사하중학교와 원산 고등중학교, 평양국제축구학교 교류협약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학교 선수 100명 및 관계자 100여명 - 각 학교별 북한 선수 약 20명, 관계자 약 20명 총 40명 - 남북 청소년 학생 간 스포츠 교류 - 북한 참여 유도 및 남북 스포츠 교류 - 향후 부산과 원산 그리고 평양에서 청소년 축구 교류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난 학생들 간 스포츠 교류 - 남북 간 소통 - 부산-원산-평양 간 지역 스포츠 교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인 남북 평화조성에 기여 - 북한 청소년들에게 남한 및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원산 청소년 농구 교류

- 부산-원산 청소년 농구 교류의 원칙은 청소년 농구 기량 경쟁 및 친목도모 경기대회이며, 북한의 원산지역 청소년 선수들을 부산으로 초대하여 남북청소년 체육선수들 간 인적교류 및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부산 및 원산에서 청소년 축구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청소년 농구 선수들의 참여와 남북한 관계자들의 남북한 방문이며, 남북 경색국면을 농구를 통해 회복 및 남북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1999년 제1차 남북통일 농구교류 실시 1999년 9월 남한이 북한 방문하여 남북통일농구 실시(남녀)
- 1999년 제2차 남북통일 농구교류 실시 1999년 12월 북한이 남한 방문하여 통일농구 실시(남녀)
- 2003년 제3차 남북통일 농구교류 실시, 2003년 10월 남한이 북한 방문하여 남북통일농구 실시(남녀)
- 2018년 제4차 남북통일 농구교류 실시, 2018년 7월 남한이 북한 방문하여 남북통일농구 실시(남녀)
-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농구 남북단일팀 구성 및 은메달 획득
- 전략으로 성인경기에 비해 실력차이가 크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실시하여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및 부산-원산 도시 교류협력
- 방안으로 부산시는 농구를 활용한 남북 스포츠교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중학교 학생 교류 제안
 - 첫째, 남북 중학교 아마추어 선수 3대3 농구 대회를 개최 및 교류
 - 둘째, 남자 중학교 엘리트 농구선수 교류(부산의 동아·금명중학교와 북한 원산의 고등중학교)
 - 셋째, 여자 중학교 엘리트 농구선수 교류(부산의 동주여자중학교와 북한 원산의 고등중학교)

<표 V-15> 부산-원산 청소년 농구 교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원산 간 청소년 농구 교류 - 성인경기에 비해 실력차이가 크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 실시 - 부산동아·금명·동주여자중학교와 원산의 고등중학교 간 스포츠 교류협약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중학교 아마추어 학생 3대 3 농구 - 부산 중학교와 원산 고등중학교 농구선수 간 스포츠 교류(남녀), (북한 선수 약 10명, 관계자 약 10명, 부산 선수 약 20명, 관계자 20명, 총 60여명 참여) - 남북 청소년 학생 간 스포츠 교류 - 북한 참여 유도 및 남북 스포츠 교류 - 향후 부산과 원산에서 청소년 농구 교류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난 학생들 간 스포츠 교류 - 남북 간 소통 - 부산-원산 간 지역 스포츠 교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인 남북 평화 조성에 기여 - 북한 청소년들에게 남한 및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시 체육대학 및 북한 원산체육대학 스포츠 교류
 - 부산-원산 체육대학 스포츠 교류의 원칙은 체육대학 간 학술 교류이며, 북한의 원산지역 체육대학과 부산의 체육대학 간 지형적 특성을 가진 스포츠 교류 협력 및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부산 및 원산 체육대학 간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스포츠과학 기술 교류를 지속하며, 남북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일본체육대학은 2012년부터 북한 조선체육대학간 교류를 시작하여 2015년 조선체육대학과 일본체육대학 간 학술 및 체육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 실시 중
 - 북한은 체육 부문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각 지방에 체육대학 설립을 추진 중
 - 평양조선체육대학, 함흥체육대학, 신의주체육대학, 사리원체육대학을 포함하여 평성시(평안남도), 해주시(황해남도), 강계시(자강도), 청진시(함경북도), 혜산시(양강도), 원산시(강원도) 총 6개 모든 도소재지에 체육대학 신설을 추진 중임
 - 전략으로 부산-원산 간 남북 대학생 간 체육교류 및 스포츠과학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 인적교류 실시, 지형적 특성을 강조한 스포츠 종목 공동 양성 및 교류 정례화 실시
 - 방안으로 부산시는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체육관련 학과와 북한 원산시 원산체육대학 체육관련 학과 간 학술 및 체육교류 실시

<표 V-16> 부산-원산 체육대학 학술 및 체육교류

원칙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원산 체육대학 간 학술 및 체육교류 - 대학에서 연구하는 스포츠과학 자료 교류 - 원산체육대학과 스포츠 교류협약을 시작으로 평양조선체육대학, 함흥체육대학, 신의주체육대학 등과 같은 각 지방체육대학과 교류 협약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대학생 간 체육교류(농구 및 축구 등) - 남북 체육관련 교수 간 학술교류 - 2015년 일본과 북한 체육대학교류 시 일본은 약45명 방문 - 남북 체육대학 교류시 북한이 남한 방문시 약 45명, 부산 관계자 45명, 총 90여명 참여) - 남북 대학생 간 스포츠 교류 - 북한 참여 유도 및 남북 스포츠 교류 - 향후 부산 각 지방 체육대학과 부산에서 스포츠 교류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들 간 스포츠 교류 및 체육대학 교수간 학술교류 - 남북 간 소통 - 부산-원산 간 대학 스포츠 교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인 남북 평화 조성에 기여 - 북한 대학생들에게 남한 및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부산의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 및 노동자 간 축구·농구 스포츠교류
 -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부산의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 및 노동자 간 축구·농구 스포츠교류의 원칙은 원산에 부산의 특성화된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남북 노동자들의 친선도모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축구·농구 스포츠 교류를 실시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인적교류 나아가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부산 및 원산에 남북 공동 운영 운동화 공장을 설립 후 부산의 운동화 제조업 기술을 북한에 전파하며, 남북 노동자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본인들이 제조한 운동화를 신고 축구 및 농구경기를 실시함.
이 같은 행위를 통해 부산 및 원산의 경제발전과 남북교류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인천도시공사에서 2011년 한중 합작법인 원난시광 무역유한공사와 협약하여 단동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 및 프로용 고급 축구화를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2년 만에 북한 근로자 채용어려움 등 및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의 어려움으로 공장 폐쇄되었음
 - 스포츠 교류를 통해 부산시의 축구화 중소기업 제조업 소개 및 북한에 축구화 제작 공정 소개를 통해 남북경협 기대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중 북한주민향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부산의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
 - 전략으로 부산의 제조업 기술 교류와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참여 유도 및 남북 공동 경제발전 및 스포츠 교류
 - 방안으로 운동화 제조하는 기술 교류 후 제작된 운동화로 노동자간 상호 스포츠 교류

<표 V-17> 부산-원산 간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 및 스포츠교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 향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화 제조업기술 교류) -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를 통한 노동자간 스포츠 교류 - 노동자들이 직접 운동화를 만들고 그 운동화를 신고 농구 및 축구 스포츠 교류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 경제발전에 도모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교류로서 대북제재 면제대상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노동자 간 제조업 기술 교류 및 체육교류(농구 및 축구 등) - 부산의 제조업 기술 교류 - 원산 노동자 부산 방문 및 기술 교류와 스포츠 교류 - 운동화 제작과 테스트 하기 위하여 남북 노동자 스포츠 교류 - 북한 참여 유도 및 남북 경제 및 스포츠 교류 - 향후 부산과 원산 간 운동화 제조업 교류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대북인도적지원으로 운동화 제조업 기술 교류 - 남북 간 경제교류를 통한 스포츠교류 -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조성에 기여 -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북한 주민을 위한 의약품 제공과 보건부문 체육대회 실시
 - 부산-원산 간 대북인도적 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술 교류 및 보건부문 스포츠 교류 원칙은 부산-원산 간 대북인도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과 의료기술 교류이며, 북한의 보건부문 노동자의 체육활동 강조에 따른 남북 보건부문 노동자 간 의료기술 교류협력 및 스포츠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원산지역에 대북인도적 의약품을 지원하고 보건부문 근로자 간 의료기술 교류하며, 나아가 보건부문 근로자 간 친선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부산-원산 간 도시 협력 및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북한은 「인민보건법」제3장 제26조를 통해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질병에 대한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체력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보건체조를 보급하고 있음
 -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무상치료제 적용대상은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53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무상치료제가 일반화되었음.
 -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수술비, 치료비, 외래약값, 입원환자 식사비, 요양치료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 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전략으로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주민 건강과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건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13년부터 보건부문 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의 보건부문 전략과 맞닿는 대북인도적 의약품 지원과 보건부문 체육교류를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피해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지속 가능
 - 방안으로 2020년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심각한 보건위기에 처해져 있으며, 북한은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환자를 보고하지 않고 있음
 - 북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부산시와 민간단체 공동으로 의약품 지원과 의료기술 교류가 필요함

- 북한과 의료기술 교류와 더불어 매년 실시되는 북한 보건부문 체육대회를 부산시 보건부문 종사자들과 함께 참여 및 개최가 필요함

<표 V-18> 부산-원산 간 대북인도적 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술 교류
그리고 보건부문 스포츠교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 향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술 교류) - 대북인도적 지원과 보건부문 종사자 체육교류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주민생활 향상 도모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교류로서 대북제재 면제대상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인도적 지원(의약품) - 의료기술 교류 및 보건부분 종사자 간 스포츠 교류 - 원산 의료부분 종사자 부산 방문 및 의료기술 교류와 스포츠 교류 - 북한 참여 유도 - 향후 부산과 원산 간 보건부문 교류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대북 인도적지원으로 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술 교류 - 남북 간 보건종사자 간 스포츠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기여 -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원산 간 장애인체육 교류협력

- 부산-원산 간 장애인체육 교류협력의 원칙은 장애인스포츠 경기 교류이며, 남북 장애인 간 스포츠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남북 장애인 선수들의 부산 및 원산에 방문하여 탁구 및 수영 등과 같은 남북 장애인 체육을 교류하며, 나아가 남북 인적교류협력을 실시하여 부산-원산 간 장애인 인식 및 인권 협력,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때 처음으로 북한 장애인 스포츠선수를 대외적으로 공식화 하였음
- 북한은 1998년 7월 비정부 단체로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발족하였으며, 2005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 확대 개편, 2003년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되었음
- 북한은 2012년 첫 런던 장애인올림픽 출전 당시 선수 1명과 선수단 24명을 런던에 파견,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4개 종목 선수 9명과 선수단 33명을 파견, 2016년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는 선수 2명과 선수단 10명이 파견, 2018년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에는 선수 2명과 선수단 24명이 파견, 2018년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는 선수 10명과 선수단 20명이 파견 되었음
-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장애인 최초 공동입장과 수영 및 탁구 단일팀이 구성되어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수영 단일팀 계영 종목에서 동메달 획득하였음
- 전략으로 부산 및 원산 장애인체육 교류를 통한 남북 장애인 인권 발전 및 경색된 남북관계를 부산시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스포츠 선수와 원산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선수 간 스포츠 교류협력 지속을 통해 남북관계 및 인권 개선
- 방안으로 남북 장애인체육은 평창동계패럴림픽과 인도네시아장애인경기대회를 통해 상회신뢰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 향후 도쿄 장애인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지속적인 남북 장애인체육교류를 위해 부산시 장애인협회와 원산 장애인협회 간 교류 및 장애인 스포츠 교류협력이 필요함

<표 V-19> 부산-원산 간 장애인체육 교류협력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장애인 체육 교류협력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주민생활 향상 도모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북한 인권 향상에 기여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및 원산 장애인 스포츠 교류 -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단일팀 계기로 지속적인 남북 장애인 스포츠 교류 - 도쿄 장애인 올림픽을 위한 남북 장애인 스포츠선수 교류 및 부산을 전지훈련장으로 유용한 곳으로 대외 홍보 - 북한 참여 유도 - 향후 부산과 원산 간 장애인 체육 교류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간 장애인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기여 - 북한 인권 향상 기여 -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원산 간 스포츠 영양 교류

- 부산-원산 간 스포츠 영양 교류 원칙은 남북 신체왜소에 대한 극복방안을 위한 학술교류이며, 북한 신체왜소 극복을 위한 남한의 스포츠 영양학 학술 지원을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남북 체육교수 및 전문가 간 스포츠 영양, 신체왜소 극복을 위한 스포츠 영양과 과학의 학술 교류를 통해 북한의 신체왜소 극복방안을 연구하며 나아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김일성 사망이후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왜소한 체격을 바꾸기 위해 키 성장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
- 김정은 역시 북한 주민의 신체왜소를 극복하기 위한 농구와 같은 신체 활동을 지속을 강조하였음
- 북한이탈주민(2014년 전체 12,777명) 중 남성 평균 신장은 167.3cm 이었으며, 여자는 155.8cm 이었음.²⁸⁾
- 2005-2008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8,214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남성의 평균신장은 165.4cm 이며, 여성의 평균신장은 154.2cm임.²⁹⁾ 이와 같은 수치의 증가는 2010년 김정일과 김정은의 식량문제에 대한 고민과 경제에 대한 집중으로 인한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음.
- 통일된 독일의 통일전과 후의 동독과 서독간의 신장차이에서 북한과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었음.
- 1992년 19세의 서독출신 신입병사의 신장이 동독출신 신입병사에 비해 1.5cm 컸으나, 1994년에는 그 차이가 0.6cm으로 좁아졌음
- 북한의 신체왜소 외에도 김일성 시기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기까지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북한체육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체육의 과학화를 강조하였으며, 김정은 집권이후 평양은 매년 건강 및 체육부문 과학기술전 시회를 열어 체육의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전략으로 부산시와 원산은 신체왜소를 극복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를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체왜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지속적인 남북공동 연구를 통해 한반도 주민의 신체왜소 극복방안 연구

28) 남북하나재단 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5), p. 255. 2014년 전체 북한이탈주민 12,777명의 신장을 조사한 기록이다.

29) 『조선일보』, 2012년 1월 31일.

도출 필요함

- 방안으로 평양에서 매년 진행하는 건강 및 체육부문 과학기술 전시회를 부산과 협약하여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 모색 필요

<표 V-20> 부산-원산 간 스포츠 영양 교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원산 간 남북 스포츠 과학 및 신체왜소 극복을 위한 학술 교류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북한 인권 향상에 기여 - 부산 건강 및 스포츠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개최 또는 평양 건강 및 스포츠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참여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보리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부산시 개최행사는 부산시 부담원칙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서 건강 및 스포츠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개최 및 북한 관계자 초대 - 평양 건강 및 스포츠부문 과학기술 전시회에 부산 참여 - 스포츠과학기술 및 키성장 학술 교류 - 북한 참여 유도 - 향후 부산과 원산 간 스포츠과학 및 신체왜소 극복을 위한 학술 교류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간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학술교류 통한 동북아 평화기여 - 북한 스포츠과학 향상 및 신체왜소 향상 기여 -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원산 간 스포츠관광 교류

- 부산-원산 간 스포츠 관광 교류 원칙은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를 피해 경제발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분야이며, 북한도 최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주요 스포츠관광 중점지역으로 강조하고 있음
- 부산 및 원산의 남북 교류협력은 해양 스포츠관광이라는 특성을 가진 각 지역 간 교류이며, 이 같은 남북관광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이 주요 원칙임
- 방향은 북한의 김정은이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 도들에 자체실정에 맞는 경제 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 것³⁰⁾”을 언급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4년 6월 11일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공식 발표했음
- 이후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으로 강조하였으며, 2017년 신년사에서는 ‘원산지구건설’을 강조, 2018년 신년사에서는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을 강조, 2019년 신년사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건설을 강조하면서 관광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음
- 북한의 관광사업에 대한 준비와 부산시의 부산 해양관광도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실시하며, 나아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부산 시민 공감대 형성에 있음
- 북한은 관광개발구 개발에 있어 크게 3가지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책을 설명 하였음

○ 첫째, 법률적 투자유치환경을 보장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방안을 언급

투자가들은 투자에 앞서 자기들의 투자가 어떤 법적보호를 받게 되는가에 주되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투자환경이 유리하여도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투자의

30) 류주형, “경제개발구개발에서 지역별특색을 살려나가기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3」,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p.48.

육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러한 법과 규정들은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수정보충되어야 한다. … 외국투자자들에게 봉사기업창설 및 운영, 토지리용, 세금특혜, 출입조건, 로력채용에서 특혜가 보장되면 자유롭고 독자적인 경영활동, 투자재산보호, 합법적인 소득에 대한 송금, 인적 및 물질적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특혜와 담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국내의 다른 관광지역들과 달리 무사증제도, 입출국수속의 간소화, 관광형식의 자유로운 선택과 같은 특혜가 보장되어야 한다.³¹⁾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2013년 5월 29일)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하 경제개발구법)’을 채택³²⁾
 -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조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개발구법 제1조는 경제개발구법의 사명으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를 5개(관광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분류하였으며,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투자자에 대한 특혜, 투자장려,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보호, 신변안전의 보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둘째, 경제적 환경을 보장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방안을 언급

관광개발구 개발에서는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하부 구조건설과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봉사시설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 관광개발구에서 외국투자기업들에 실시되는 특혜제도와 유리한 개발환경보장의 기본목적은 외국투

31) 공혁, “관광개발구개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p.31.

32) 북한법연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북한법연구회, 2013), pp. 207-219.

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것만큼 관광개발구개발에서 나라의 경제적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³³⁾

- 북한은 경제개발구법 제30조(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를 통해 “기업은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 저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개발한 토지의 이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음
- 건물건설과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필요한 면적의 토지이용권을 구매한다면 다음 건물을 건설하거나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구매 또는 임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가격을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생태환경을 보호 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방안 언급

관광업의 급격한 확대는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되고 있다.³⁴⁾ 생태관광지가 합리적으로 개발운영되면 역사유적유물들이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특별히 보호되게 된다. 따라서 생태관광을 장려하는 것은 역사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³⁵⁾

관광개발구를 개발하고 관광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원칙에서 관광자원을 찾

33) 공혁, “위의 책”, p. 31.

34) 리은별, “관광업의 확대에 의한 환경파괴와 그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동향,” 「경제연구 2」,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p. 33.

35) 리금별, “생태관광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p. 32.

아내고 개발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관광개발구관리기관의 기본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
다.³⁶⁾

○ 부산-월산 간 스포츠관광 교류 전략으로

-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생태환경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생태환경 보호 아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음
-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강조하였음
- 2013년 5월 29일 채택된 경제개발구법 부칙 제2조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며, ‘월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는 현재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됨
- 북한은 경제개발구법 제55조 ‘개발기업의 특혜’에서 관광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으며,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이 같은 경제개발구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월산갈마해안관광지구’내 관광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북한의 호텔운영 관련 주요 연구를 통해³⁷⁾ 향후 북한의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음
- 최근 남한 정부는 북한 관광사이트를 남한 주민들에게 오픈하여 누구든지 북한의 관광사업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36) 공혁, “위의 책”, p. 32.

37) 차강무, “호텔경영관리에서 봉사과정과 그 조직원칙에 대하여,” 『경제연구 1』,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p. 51-52. 김평남, “호텔경영활동의 특성,” 『경제연구 2』,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p. 42-43. 한철명, “관광보험선전의 원칙과 내용,” 『경제연구 2』,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p. 54-55. 황철우, “관광공급능력의 조성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2』,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p. 56-57. 박정철, “관광기업체경영활동에서 가격공간의 합리적 리용방도,” 『경제연구 4』,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p. 45-46.

- 부산시는 남북 체육교류 장기 전략으로 부산의 다이나믹 해양스포츠 도시임을 부각 및 스포츠관광 교류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부산-원산 간 스포츠관광 교류 방안으로

- 스포츠 관광의 정의는 스포츠에 참여 혹은 관람을 목적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³⁸⁾

- Sport Tourism International Council(1995)는 “스포츠 관광 매력, 자연적 자원(공원, 산, 야생 생물 등)과 인조물(박물관, 경지장 등), 스포츠 관광 리조트, 스포츠 관광 크루즈”등의 조합을 스포츠 관광으로 정의하였으며³⁹⁾, Getz(1998)는 “스포츠 관광이란 개최지의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이익을 달성할 목적을 가진 스포츠 이벤트의 개발 및 마케팅 과정’이라고 정의⁴⁰⁾”하였음

- 부산시는 남북스포츠관광을 통해 국내적으로 부산-원산간 크루즈 여행을 금강산관광 사례처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외적으로 부산-원산-블라디보스토크 크루즈 여행도 모색 가능

- 부산시는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의 발전을 위해 부산시 해운대 및 광안리의 관광사업 모델 교류가 필요함

- 북한의 최근 경제연구를 검토 한 결과, 관광사업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집중적으로 다수가 발견되었으며, 금강산-원산 해안 관광사업에 대한 연구와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호텔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 부산-금강산 간 생태스포츠 관광과 부산-원산 해양 스포츠관광 교류가 필요함

- 부산-금강산 간 생태스포츠 관광은 남북 유적지 탐방과 호캉스(호텔에서 휴양) 사업 개발 필요

- 부산-원산 해양 스포츠 관광은 크루즈를 통한 관광사업이 필요함

38) 한국관광공사, 「스포츠 관광 마케팅 활성화 연구-2018평창동계올림픽 중심으로」한국관광공사, (웃고문화사, 2012), p. 19.

39) 한국관광공사, 위의 책, p. 20.

40) Getz, D.(1998). Trend, Strategies and Issues on Sport-event Tourism, *Sport Marketing Quarterly*, 7(2), pp.8-13.

- 1일차 : 부산 해양 스포츠체험(20-30대) - (마린시티 요트투어, 송정해수욕장, 서핑, 송도해수욕장 바다다이빙, 광안리 카약체험): 부산 문화 체험(40-50대) - (이기대산책로 투어, 태종대 투어, BIFF(부산국제영화제): 부산 역사 체험 - (태종대 투어, 송도 케이블카, 동래읍성역사 투어)
- 2~3일차 : 북한 원산갈마지구 스포츠�관광
- 4일차 : 부산 도착

〈표 V-21〉 부산-원산 간 스포츠관광 교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의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추진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남북 경제 발전 및 남북인적 교류 - 지역관광사업 활성화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관광은 제외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및 원산 간 관광사업 교류 협약 체결 - 부산에서 크루즈를 이용하여 원산 방문 및 원산갈마지구 주요 관광 코스 관광 및 원산 내 호텔 투숙 - 원산 생태 스포츠관광 및 남북 유적지 탐방 - 부산의 주요 관광과 원산의 주요 관광을 접목시킨 남북관광교류협력 사업 - 북한 참여 유도 - 향후 부산과 원산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한 관광 사업을 발전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간 스포츠관광으로 동북아 평화기여 - 북한 관광사업 발전 및 경제발전 -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부산-강원-원산 간 남북종단 국제사이클 대회 개최

- 부산-강원-원산 간 남북종단 국제사이클 대회 원칙은 국제 사이클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경쟁을 하기 위한 경기이며, 부산에서 출발하여 강원을 지나 원산까지 남북종단 국제사이클 경기를 통해 세계적으로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전 세계 사이클 선수 및 남북 프로 및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가 참여하며, 국제사이클 협회를 통해 공식적인 국제경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함
- 부산-강원-원산까지 경기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남북 평화안착을 홍보하며,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부산 및 각 지자체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자전거에 대한 주요변화를 보여주었음
- 2012년 10월 평양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평양주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였음
- 2013년 북한은 북한-중국 간 국제자전거관광 축전을 개최(함경북도 나선시) 하였음
- 2018년 1월에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한 서울자전거 ‘따릉이’와 같은 평양의 ‘려명’이 등장
-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평양 ‘광복거리’ 5군데에 ‘임대소’가 있으며 카드발급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
- 2018년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홈페이지에서 ‘가을철 평양시 자전거 및 DMZ 투어’라는 상품 소개
- 2019년 국제사이클연맹이 공인하는 아시아 청소년 자전거 대회 개최하여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화까지 510km 구간 진행
- 전략으로 부산시는 북한 관광총국, 강원도 그리고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협력하여 부산-강원-원산까지 약 500km 남북체육 교류 해안도로 종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방안으로 스포츠�관광 교류의 일환으로 강원도 및 북한의 원산시와 협력하여 주요 휴식처와 구간 개발 및 ‘투르 드 코리아’ 코스 개발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이클 경기대회 개최

〈표 V-22〉 부산-강원-원산 간 남북종단 국제사이클 대회 개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협력 - 남북교류 및 평화구축에 기여 -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 - 지역관광사업 활성화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관광은 제외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과 강원도 그리고 북한의 원산 간 스포츠�관광사업 교류 협약 체결 - 부산에서 강원도 삼척, 속초, 고성 그리고 원산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경기대회 - 중간 거점지역에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 원산 생태 스포츠클럽 및 남북 유적지 탐방 - 부산의 주요 관광과 강원도의 주요 관광 그리고 원산의 주요 관광을 접목시킨 남북스포츠 관광교류협력 사업 - 북한 참여 유도 - 향후 부산과 원산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나아가 러시아를 지나 영국까지 연결한 스포츠 관광사업으로 발전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간 스포츠클럽으로 동북아 평화기여 - 북한 관광사업 발전 및 경제발전 -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와 개최종목 분산

- 2018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은 “4. 화해·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 합의 및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적극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에 합의 하였음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의 원칙은 서울-북한 간 공동개최 유치가 원칙이며,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를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에 있음
- 방향은 현재 2032년 서울-평양 남북공동 올림픽 개최이나, 서울, 부산, 평양, 원산 분산 개최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부산 시민공감대 형성에 있음
- 2019년 부산시는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관련 유치도시 선정(2025년 IOC 투표로 선정) 앞두고 남북평화올림픽을 위해 부산서울, 원산평양 4개 도시 공동 유치를 제안 하였음
- 2019년 2월 서울이 올림픽 유치도시로 남한 내 최종 확정되었으며, 북한의 지역은 아직 미정임. 2025년 IOC에서 투표를 통해 2032년 최종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예정
- 전략으로 도쿄올림픽 기준으로 남북 분산 가능 종목을 검토 실시해 본 결과, 주요 내용은 <표 V-16> 과 같음
- 2020년 도쿄올림픽(코로나바이러스-19로 2021년으로 연기)기준 올림픽 경기종목 수는 총 33종목이며, 세부경기는 324 경기이며, 금메달 수는 모두 339개임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준 경기장 관객 수용기준은 승마(10,000명), 사이클 트랙 5,000명, 산악자전거(MTB) 2,000명, 바이시클 모터크로스(Bicycle Motocross, BMX) 5,000명, 로드 1,000명, 체조(기계, 트램펄린 12,000명, 리듬 5,000명),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2,500명), 축구(결승 50,000, 예선 20,000명) 임
- 북한에서 개최 가능한 종목은 사이클, 승마, 체조, 트라이애슬론, 축구 등이며, 승마는 북한의 미림승마구락부, 체조는 김일성경기장, 트라이애슬론 신축필요, 사이클은 신축필요, 축구는 룡라도5월1일 경기장에서 개보수를 통해 국제경기가 가능함

〈표 V-23〉 2020 도쿄올림픽 개최종목 기준 대비 2032년 남북평화올림픽
개최 시 부산 개최 가능 종목 검토

전체종목 33개 세부경기 324경기	골프	사이클	승마	체조	공수도
	야구/ 소프트볼	축구	근대5종	농구	럭비
	서핑	양궁	탁구	태권도	레슬링
	수상종목 (수영외)	역도	요트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복싱	비치발리볼	사격	스케이팅보 드
	스포츠 클라이밍	유도	육상	조정	트라이 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부산 개최 시 부산 개최 가능 종목					
	요트	트라이 애슬론	서핑	비치발리볼	조정
부산 개최 시 평양, 원산 개최 가능 종목					
	사이클 중 도로/산악	승마	체조	트라이 애슬론	축구

참조 : 위키백과, 검색일 : 2020.04.15.

(https://ko.wikipedia.org/wiki/2020%EB%85%84_%ED%95%98%EA%B3%84_%EC%98%AC%EB%A6%BC%ED%94%BD#%EA%B2%BD%EA%B8%B0_%EC%A2%85%EB%AA%A9.)

- 방안으로 2032년 남북 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분산 개최 필요
- 부산은 해양다이나믹 도시 슬로건을 통해 요트, 트라이애슬론, 서핑, 비치발리볼, 조정 등과 같은 경기를 유치 필요
- 원산은 사이클 경기중 도로와 산악경기, 트라이애슬론, 평양은 승마, 체조, 축구 등과 같은 경기를 유치 가능
- 평화올림픽으로 남북 분산개최 시
- 첫째, 대내적으로 남북관계 증진과 남북 평화 모드 진전
- 둘째, 대외적으로 전 세계 역사 상 최초로 분단 국가가 평화를 위해 개최한 올림픽 사례가 될 것임

- 셋째, 정치적으로 동북아 평화에 기여
- 넷째, 경제적으로 대다수의 외국인의 방문과 내국인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발전에 도모
- 다섯째, 사회문화적으로 남한의 서울과 부산, 북한의 평양과 원산 각 지역 도시인프라 구축 및 사회문화 발전
- 여섯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제외대상인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가능

〈표 V-24〉 2032년 하계올림픽 주요 종목 분산 개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적극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합의 - 서울, 부산, 평양, 원산으로 종목 분산 개최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협력을 위한 부산 시민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 부산형 남북상생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능동적 대비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 및 남북 경제발전에 기여 -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 - 지역 사회·문화·체육·관광사업 활성화 - 도시브랜드 구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 남북관련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국-남북협력기획단
재정 (남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69억 (2020년 말 예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의 및 협조 요청 - 미국에 협조 요청 -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 운송 및 화물관련 북한의 협조를 얻어 화물검사 실시 - 금융제재관련 관광은 제외 - 입국제재대상은 북한과 사전협의
예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부산, 평양-원산 간 2032년 하계올림픽 주요 종목 분산개최를 통한 각 지역 발전 -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분산 평화올림픽 진행 가능 - 원산에 국제체육경기대회 개최 시 필요한 경기장 및 관광객을 위한 숙소 등과 같은 준비사항 교류 - 북한 참여 유도 - 부산과 원산 간 지속적인 스포츠�관광 사업 정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간 스포츠교류로 동북아 평화기여 - 북한 스포츠 관광사업 발전 및 경제발전 - 부산 이미지 제고

출처 : 부산시 주요시책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반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 북한과 미국의 정상 역시 2018년과 2019년 만남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음
-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의 오랜 대치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근래에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태로 인해 한반도 상황 역시 개선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실정임
-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간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사업 등이 기존의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 등까지 외역이 확장될 것임
-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남북 문화·체육 분야의 전면 교류와 협력사업에 대비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함
- 한편, 4.27 판문점 선언 1조 4항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남북문제의 주요 행위자이며 당사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은 부산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수행하는 마중물이자 목표를 전면
에 드러내는 매우 효과적인 분야임
-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문
화·체육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
및 역량을 구축하고자 했음

2.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 제2장에서는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배경과 대북제재 부분
을 다루었음
 - 한국전쟁 이후 남북 교류는 정치적 목적 아래 진행되었음
 -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통해 남북 문화
교류가 실시됨
 - 1990년대에는 탈냉전이라는 대외환경과 남한의 북방정책, 북한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존을 위한 남북 간의 사회문화체육 교류가 상호
전략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음
 - 2000년대 들어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이라는 정상 간 합
의를 도출하면서 문화와 체육 중심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이후 정권교체, 군사적 대치 등으로 남북관계는 침체기를 겪었지만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평화의 봄이 찾아왔음
 - 한편, 대북제재는 2000년대 이후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강한 대북제재 조치가 실시되고 있음
 - 다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연
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였음
 -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나 대북제재의 예

외조항(인도적 지원이나 구호 활동, 사안별 면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논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3장에서는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현황을 살펴보았음
 -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목적에 따라 남북 사회문화교류, 남북경협, 대북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행위자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분류가 가능함
 - 제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구분할 수 있음
 - 조직적으로 통일부는 2020년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해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역시 여러 관련 부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의 재정 안정성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 있음
 - 끝으로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조건을 다루었음
 - 역사적으로 부산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0년 제81회 체육대회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대회 성화 채화를 실시하였음
 - 이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하였음
 - 부산시는 2007년 7월 11일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를 이행하고 있음
 - 근래에 부산시는 남북협력 「PEACE 2019」를 마련해 남북한 평화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에서는 먼저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큰 틀에서 1) 단계별 전략, 2) 문화·체육 전략, 3) 국내외 연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안으

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안하였음

- 2020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와 지속되는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라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를 벗어난 사업으로 관광사업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음
 - 김정은은 “각 도들에 자제실정에 맞는 경제 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양덕온천관광지구’ 등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북한의 『경제연구』등의 연구집에서는 최근 외자유치와 관광개발구 관리 방법, 호텔업 관리방법, 생태환경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었음
- 2020년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속 부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실현가능성
 - 둘째,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성
 - 셋째, 지역 연계성
 - 넷째, 북한의 수용가능성
 - 다섯째, 외부변수 차원의 지속가능성(대북제재)
- 아래 <표 VI-1>과 같이 부산시 문화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타당성 검토한 결과 부산시 남북 언어분야 교류 및 부산시 남북 문화유산 교류, 남북영화, 애니메이션 등은 부산시와 북한 각 지역 간 적극적인 교류협력 시 실현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변수(유엔 제재)에 따라 지속 또는 일시적 행사, 퍼포먼스(Performance)로 될 수도 있음
- 반면에, 향만, 물류, 관광, 수산, 금융 교류 하에서 문화 교류 등은 중장기 과제이며, 단시간 큰 기대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부산시와 북한 지역 간 교류협력이 지속될 시에는 자연스럽게 부산-원산 간 방송교류 및 문화예술 공연도 교류가 진행될 것이라 사료됨

<표 VI-1>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문화)

문화	교류협력사업 분야 및 내용	실현 가능성	지자체 지속 가능성	연계성	수용 가능성	외부변수 지속 가능성
단기	남북 언어 분야 교류	○	○	○	○	△
	남북 문화유산 교류	○	○	○	○	△
	남북 영화, 애니메이션 교류	○	○	○	○	△
	남북 일제강점기 역사 교류	○	○	○	○	△
	남북 평화와 분단사 교류	○	○	○	△	△
	남북 공연예술 교류	○	○	○	○	△
중장기	남북 윤이상음악회 교류	○	○	○	○	△
	항만, 물류, 관광, 수산, 금융 교류 하 문화 교류	○	○	○	△	△
	영화세트장 지원 등 문화산업 인프라 지원	○	○	○	△	△
	부산-원산 공연예술 교류	○	○	○	△	△
	부산-평양 간 방송 교류	○	○	○	△	△

출처: 나용우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p. 94. 자료 참고 및 저자 재구성.

〈표 VI-2〉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체육)

문화	교류협력사업 분야 및 내용	실현 가능성	지자체 지속 가능성	연계성	수용 가능성	외부변수 지속 가능성
단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	○	○	○	△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	○	○	○	○	△
	부산-원산 간 용선 교류	○	○	○	○	△
	국제마라톤경기대회	○	○	○	△	△
중장기	부산-원산-평양국제축구 학교 청소년 축구 교류	○	○	○	○	△
	부산-원산 청소년 농구 교류	○	○	○	○	△
	부산-원산 체육대학 학술 및 체육교류	○	○	○	○	△
	부산-원산 간 운동화 제조업기술교류 및 스포츠교류	○	○	○	○	△
	부산-원산 간 대북인도적 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술 교류 보건부문 스포츠교류	○	○	○	○	△
	장애인체육 교류협력	○	○	○	△	△
	스포츠 학술 교류	○	○	○	△	△
	스포츠관광 교류	○	○	○	○	○
	부산-강원-원산 간 남북종단 국제싸이클 대회 개최	○	○	○	△	△
	2032년 남북 평화올림픽 부산 개최 가능 종목 검토	○	○	○	○	△

출처: 나용우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p. 94. 자료 참고 및 저자 재구성.

- 위 <표 VI-2>과 같이 부산시 체육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타당성 검토한 결과 부산시 국제체육경기대회 개최(탁구, 역도, 마라톤, 싸이클 등)은 단계별, 체육전략별, 국내외연계 전략으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보다 수월할 것이라 판단 되며, 다만, 외부변수(유엔 제재 또는 한미훈련 강행등)은 북한과의 신뢰를 반하는 행동으로 북한과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음 (2020 도쿄올림픽 5개종목 남북단일팀 합의 후 현재 경색국면 사례)
- 반면에, 인도적 지원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스포츠 교류 등은 유엔 제재 내에서 예외 조항인 만큼, 부산시의 중장기과제로 적절히 대북제재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부산시 및 북한 체육교류 내 남북 공동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현재 마이너스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완전한 핵 폐기와 북미대화 재개 및 경제 교류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예외조항 교류 및 발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한의 대북제재 속에서 부산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새로운 1회성 이벤트를 만들기 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복원해 내실 있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미래세대를 고려한 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문화적 다양성을 자기정체성으로 삼는 현재의 2030 세대에게 통일, 민족, 통합이라는 가치가 일종의 억압기제나 사회심리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김성수 2018, 7)
 - 남북 문화교류 사업에서도 과거 10년 전 사업을 회복, 재개, 복구의 관점에서 사고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화를 레트로(복고), 키치(B급) 등 다양성을 염두에 두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끝으로 문화산업, 체육산업에서 남과 북이 윈(Win)-윈(Win)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는 여러 난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의 모멘텀(Momentum) 을 마련하여 상호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Abstrac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erved as a bridgehead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meet the top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South and North Korea held several sub-committee working meetings from 2018 to 2019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to a new high level. Representatively, a subcommittee meeting was held in the areas of 'Forest, Health and Sport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sports, it was agreed to form a single inter-Korean team in international games including the 2020 Summer Olympic Games and to jointly host the 2032 Summer Olympic Games.

However, after meeting 2019 North Korea-US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and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eting in June 2019, have agreed to resume the working-level talks, but the results have not been achieved.

North Korea declared the “front breakthrough” at the 7th Fifth Congress in December 2019, explaining the current situation as “sharp and complicated situation”. Such a declaration is a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s sanctions and long-term improvement in US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continue the “Era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ful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inter-Korean culture and sports field.

"4.27 Panmunjom Declaration Article 1 Paragraph 4" states that "promoting national joint events of all walks of life,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actors and parties to the inter-Korean issue.

Busan City is pursuing a "City of Inter-Korean Economic and Exchange Cooperation" by researching and linking the new northern and southern policies with the goal of "building a central c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peace".

Culture and sports are very important fields that fulfill the goals of Busan City and can be said to be very symbolic areas that reveal the goals of Busan City.

This study aims at maximizing the strengths of the city of Busan and discovering project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sports that North Korea can respond to, thereby building momentum and capacity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coexist.

참고문헌

- 공혁. 관광개발구개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2017). 31.
- 권태상. BDI 정책포커스: 부산의 남북경제·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제352호(2019). 1-16.
-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문화재 제52권 제3호(2019). 252-269.
- 김동선. 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2018). 21-53.
- 김동성 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7.
-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 평화 10집 2호(2018). 5-38.
- 김평남. 호텔경영활동의 특성. 경제연구2(2019). 42-43.
- 김형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 시대의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 제18권 제1호(2018). 115-155.
- 나용우 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2019. 23-27.
- 나용우 외. 남북 문화·체육교류의 새로운 방향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2019.
- 류주형. 경제개발구개발에서 지역별특색을 살려나가기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3. (2017). 48.
- 리금별. 생태관광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2017). 32.
- 리은별. 관광업의 확대로 인한 환경파괴와 그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동향. 경제연구2.(2017). 33.
- 명광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2017.
- 민민홍·김철원. 新 베를린 선언과 남북관광 교류 탐색 연구. 경상논총 제35권 3호(2017). 19-36.

-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박정철. 관광기업체경영활동에서 가격공간의 합리적 리용방도. 경제연구4. (2019). 45-46.
- 박형준. 역대 정권의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적 특징과 거버넌스 유형. OUGHTOPIA 제33권 4호(2019). 45-76.
- 배인교. 남북한 음악교류의 양상과 방향. 통일과 평화 10집 2호(2018). 39-80.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요약본). 2019.
- 북한법연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2013). 207-219.
-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제2호(2017). 94-115.
- 송태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모색: 한반도 한류의 창출과 북한 국제평판의 쇄신. 정치·정보연구 제21권 3호(2018). 119-146.
- 서보혁 외.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통일연구원, 2018.
- 오동하 외. BDI 정책포커스: 부산 스마트시티로 남북협력의 기회 선점. 부산 발전연구원 제347호(2018). 1-12.
- 이우영.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2018). 47-64.
- 이창희.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평화학연구 제19권 제3호(2018). 27-46.
- 이한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1호(2017). 213-242.
- 이해정·이용화. 현안과 과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8.
- 임강택·홍제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통일연구원,

2017.

- 임정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질적 전환 조건 연구. GRI연구논총 제20권 제2호(2018). 329-355.
- 전영선.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욕망과 김정은 체제의 변화. 평화가제트 NO. 2018-G25. 1-11.
- 전영옥·김연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2017). 377-395.
- 정대진·정일영.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통일연구 제22권 제1호(2018). 109-141.
- 정은찬·문철훈.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집 제1호(2017). 91-113.
-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집(2019). 363-395.
- 차강무. 호텔경영관리에서 봉사과정과 그 조직원칙에 대하여. 경제연구1(2019). 51-52.
- 최대석 외.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2009년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9). 53.
- 한국관광공사. 스포츠 관광 마케팅 활성화 연구-2018평창동계올림픽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2012). 1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 한국은행. 공보 2019-7-26호(2019). 2019.07.27.
- 한철명. 관광보험선전의 원칙과 내용. 경제연구2.(2019). 54-55.
- 황교욱.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비교 연구: 거버넌스 전담기구의 운영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0권 2호(2018). 117-149.
- 황교욱.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정책연구 제29권 제2호(2018). 81-108.
- 황선훈.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공법

- 학연구 제20권 제2호(2019). 95-122.
- 황선훈.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단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2호(2019). 115-144.
- 황철우. 관광공급능력의 조성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2.(2019). 56-57.
- 허정필.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 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2018). 75-97.
- 홍석훈·나용우.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1호(2018). 179-201.
- Getz, D. Trend, Strategies and Issues on Sport-event Tourism. *Sport Markering Quarterly* 7(2).(1998). 8-13.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회 2019-5호. 2019.12.11.
- 남북하나재단 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2015). 255.
-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 통계자료, 2020.03.17.
- 유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ites/www.un.org.securitycouncil/files/1718_implementation_assistance_notice_7.pdf. (검색일 2020.03.18.)
- 유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https://www.un.org/undpa/en/speeches-statements/22122017/resolution2397%282017%29>. (검색일 2020.3.17.).
- 위키백과, 유엔현장,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C%A0%9C%EC%97%B0%ED%95%A9%ED%97%8C%EC%9E%A5> (검색일 2020.3.17.).

현안연구 2019-00-000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저 자 한승대, 허정필

발행인

발행일 2020년 4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850, FAX (051)860-8619

홈페이지 <http://www.bdi.re.kr>

인쇄처 가꿈복지 ☎ (051)862-6090, FAX (051)862-8091

ISBN 978-89-5896-000-0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